학위 청구 논문 발표회
발표 요지집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1시

장소 :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

(ZOOM ID: 896 5117 6861)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학위 청구 논문 발표회
발표 요지집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1시

장소 :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

(ZOOM ID: 896 5117 6861)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학위 청구 논문 발표회
발표 요지집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1시

장소 :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

(ZOOM ID: 896 5117 6861)

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공개논문 발표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지은(2차) 한일 신체 관용구의 형태와 조사 비교 연구 ····· 1

문학박사학위청구논문 2차 발표문

한일 신체 관용구의 형태와 조사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 어 일 문 학 과

이 지 은

2023년 4월 20일

목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 3
1.3 연구 방법 및 대상 ····· 8
1.3.1 연구 방법 ····· 8
1.3.2 연구 대상 ····· 9
1.3.3 한일 조사 비교 ····· 10
1.3.3.1 조사의 정의 ····· 10
1.3.3.2 조사의 분류 ····· 11
1.3.3.3 격조사의 의미와 분류 ····· 12
2. 신체 관용구 정의와 형태 분류 ····· 14
2.1 신체 관용구의 정의 ····· 14
2.1.1 한국어의 정의 ····· 14
2.1.2 일본어의 정의 ····· 14
2.2 신체 관용구의 형태 분류 ····· 15
2.2.1 머리(頭)부분 관용구의 분류 ····· 16
2.2.1.1 머리(頭)의 관용구 분류 ····· 16
2.2.1.2 얼굴(顔)의 관용구 분류 ····· 17
2.2.1.3 눈(目)의 관용구 분류 ····· 18
2.2.1.4 코(鼻)의 관용구 분류 ····· 20
2.2.1.5 귀(耳)의 관용구 분류 ····· 21
2.2.1.6 입(口)의 관용구 분류 ····· 23
2.2.2 상체(上体)부분 관용구의 분류 ····· 24
2.2.2.1 팔(腕)의 관용구 분류 ····· 24
2.2.2.2 손(手)의 관용구 분류 ····· 25
2.2.2.3 가슴(胸)의 관용구 분류 ····· 28

2.2.2.4 배(腹)의 관용구 분류 ····· 29
2.2.3 하체(下半身)부분 관용구의 분류 ····· 31
2.2.3.1 허리(腰)의 관용구 분류 ····· 31
2.2.3.2 발(足)의 관용구 분류 ····· 32

3. 신체 관용구의 조사 분류와 기본 구조 형태 ····· 33
3.1 신체 관용구의 조사별 분류 ····· 34
3.1.1 ～が의 관용구 분류 ····· 36
3.1.2 ～に의 관용구 분류 ····· 37
3.1.3 ～の의 관용구 분류 ····· 38
3.1.4 ～を의 관용구 분류 ····· 39
3.2 신체 관용구의 기본 구조 형태 분석 ····· 40
3.2.1 정형적 구조 형태의 분석 ····· 41
3.2.1.1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동사 분석 ····· 41
3.2.1.2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형용사 분석 ····· 42
3.2.1.3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부정 분석 ····· 42
3.2.2 비정형적 구조 형태의 분석 ····· 43
3.2.2.1 신체명사의 합성어의 구성구조 분석 ····· 43
3.2.2.2 비정형적 구조의 구성 형태 ····· 44
3.2.3 무정형적 구조 형태의 분석 ····· 44

4. 신체 관용구의 형태와 조사의 비교 분석 ····· 45
4.1 눈(目·眼)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 46
4.2 머리(頭)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 48
4.3 얼굴(顔)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 49
4.4 가슴(胸)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 51
4.5 배(腹)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 53
4.6 발(足)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 55

5. 한일 신체 관용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56
6. 결론 ····· 63

참고문헌 ····· 67

1.서론

1.1 연구 목적

오늘날 글로벌(global) 시대의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동과 이주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언어 사용 현상과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인식을 공유한다. 한편으로는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각 국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첨단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든든한 인간관계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서로 소통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그 나라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로 소통하겠지만 국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공용어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우호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의사소통을 할 때 고유하고 독특한 언어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민족이 많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대 사회에서도 의사 표현 방법은 신호나 음성을 활용한 행동 양식이 대표적인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나름대로 고유한 음성 형태 언어생활이 주축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차츰 언어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관용적인 표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천하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언어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성이나 사회적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감정 표현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가 녹아든 살아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주 사용하게 되는 관용적인 표현은 사멸된 단어나 화석화된 표현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 갈고 다듬어져 살아남은 생생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수단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 주변 상황과 연령층에 따라 신체에 관련된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표현 보다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으로 서로 감정을 자극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신체 명칭과 관련된 관용표현

은 일반적으로 신체어가 갖는 1차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술어와 접속하여 2차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도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하면서 가장 적절하고 누구나 공감이 되는 표현으로 활용되어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해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관용 구문을 활용한 관용적인 표현이 대화나 문학작품 등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수집해서 의미의 내용 분석이나 분류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도 신체 관용표현에서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자가 관용표현을 사용할 때 주어와 술어를 이어주는 조사의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그 조사가 사용되었을 때 갖는 고유의 의미와 미묘한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신체 관용 구문일지라도 접속되는 조사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한일 신체 관용구문의 예문도 제시하면서 의미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미 굳어지어 사용되고 있는 관용표현을 굳이 조사까지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조사가 갖는 미묘한 느낌과 같은 표현이라도 조사에 따라 심층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관용구문에서 많은 조사 가운데 특정의 조사가 정해진 것은 상당한 세월동안 표현되면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조사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는 한일 신체 관용구문에서 머리 부분과 상체부분 및 하체부분의 신체 관용구를 분류하고 특히 머리 부분과 상체 부분의 관용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한일 관용구 예문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도 분석하고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관용구의 형태적인 면도 살펴보면서 구성된 구조의 종류를 정형적 구조·비정형적 구조·무정형적 구조로 분류해서 관용표현이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 구조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관용 구문이 구성되는 형태는 기본적인 정형적 구조가 가장 많고 원칙적인 표현이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조사가 생략된 것도 있고 주어적인 의미가 생략되어 술어로만 간단히 표현하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한일 신체 관용구문의 구성적 구조를 분류해서 각각의 형태적인 의미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신체 관용표현에 관한 연구는 한일 양국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초창기에는 관용구로 표현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분류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다고 본다. 차츰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거듭하여 분야별로 분류하고 형태별 분석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 신체에 관한 관용구도 한 분야를 차지하면서 이 관용구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에서부터 내면에 존재하는 언어적인 가치의 발굴과 심층적인 분야까지 확대 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신체 부위를 인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면적인 의미를 파악하면서 심리적인 배경까지 연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신체 관용구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연구자가 논문에 인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영희(1982)[1]에서는 관용어의 생성에 대해서 고사 성어라든가 국어의 전통적 표현 방법이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관습적으로 고정화되었다고 보며 이것이 낱말의 의미 변화나 의미 확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보조관념을 이용한 비유법이 많고 별로 특별하지 않은 대중적인 개념들이고 다양한 문체상의 표현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홍사만(1994)[2]에서는 신체 어휘의 비유법에는 신체 부위가 가진 기능적, 속성적, 형태적, 유사성에 의해 전이되는 비유법이 가장 두드러진 형태라고 하면서 특히 신체 부위를 통한 구체적 동작이나 형태의 표현이 추상화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물에까지 적용되는 확장의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김옥분(2000)[3]에서는 신체 어휘에 고유어가 많고 한자어가 적은 것으로 보아 우리 민중이 언어 인식이 주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임팔용(1998)[4]에서는 '신체 어휘 관용구'에 대한 고찰의 경우 대개 각 용례

---

1) 이영희(1982) 「國語의 慣用的 表現에 의한 意味의 多義化 硏究」 『語文論集第16輯』 중앙대학교 p.65
2) 홍사만(1994) 「身體 語彙의 多義 構造 分析(Ⅵ) 『語文論叢 第29號』 경북어문학회 p.125～163
3) 김옥분(2000) 「身體 言語 慣用句의 認知的 理解」 『韓國學硏究』 第11輯1號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p.36
4) 임팔용(1998) 「日・韓 身體語彙 慣用句의 對照 考察1」 『日本文化硏究 第13輯』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센타 일본연구소 p.275

에 대한 단순한 의미의 설명이나 주석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많고 신체 어휘 개념이나 범위 등의 체계적인 고찰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각 신체 어휘의 용례 분석으로부터 추출할 개념이나 사상(事象) 또는 감정과의 결부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반대로 우선 일반화된 개념이나 감정을 먼저 내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관계되는 대상을 파악해 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임팔용(2006)[5]은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관용구의 양상과 신체 어휘가 관용구 표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감정이나 심리적 태도를 비교 대조하였고 신체 어휘의 개념 및 의의를 살펴보기도 했다.

유춘희, 성은경, 김현철(2000)[6]에서는 종래의 관용구에 관한 연구는 동일 언어 집단 속에서만 행하여지고 있으며 다른 언어와의 비교는 별로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행하여지고 있어도 신체 부위 명칭의 비교 등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일 양 언어의 관용적 사전을 고찰 대상으로 하여 첫째로 품사별 특징 둘째로 형식상 특징 셋째로 어휘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권익호(2019)[7]에서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일본어 표현 중 일본어라는 의식이 희박한 일본어 투 조사(助詞)의 사용실태 및 사용양상에 대하여 국내 5대 주요 신문을 대상으로 시대별로 고찰한 것이다. (1) ～과(와)의, (2) ～에 있어(서), (3) ～에서의, (4) ～(으)로부터, (5) ～로의, (6) ～(으)로서의, 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모든 연도에서 (1) ～과(와)의, 가 가장 사용횟수가 높았다는 점과 1990년대보다 2019년도에 일본어 투 조사 사용이 현저히 줄었다고 분석했었다.

박복덕(1986)[8]에서는 일본어의 「に」와 한국어의 「에」를 대응시켜서 「に」의 문법적 기능과 「에」에서 「に」의 기능에 의한 분류로 격조사·접속조사·병립조사·종조사 중 처소격조사의 「에」대응하는 것은 격조사 일부분과 병립

---

5) 임팔용(2006)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 연구」 제이엔씨 p.15
6) 유춘희 성은경 김현철(2000) 「韓·日 兩言語에 대한 慣用句의 特徵 比較」 『日本學報 第44輯 1號』 韓國日本學會 pp.85-96
7) 권익호,이선화(2019) 「신문에 나타난 일본어 표현에 관한 고찰」 『語文論文集第80輯』 중앙어문학회 pp.7-35
8) 박복덕(1986)「日本語の『に』と韓國語の『에』との對照」『日語日文學硏究 제9집』 韓國日語日文學會 p.50

조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森田良行(1966)[9]는 관용적인 표현 방법은 사전적 의미의 이해나 문법적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관용적인 표현에 나타나는 관용적인 말하기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고 말의 표현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의 이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星野命(1976)[10]는 신체 어휘를 고도의 감정과 지성의 작업까지 포함한 실천적인 용어라고 하면서 신체 어휘에 의한 관용 표현이란 인간의 신체에 관한 어휘 가운데 직접 신체 부위의 명칭을 일부 또는 전부 차용하면서 직접 지시하기 보다는 다른 상태나 활동을 암시하고 묘사하는 표현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大月実(1987)[11]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관용구 중에서 관용구에 나타나는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의미적인 면에서 분석하였다. 관용구가 포함하고 있는 어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신체 어휘를 활용한 관용구는 사전적 의미나 문법적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이나 심리적 태도까지 들여다보아야 표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 신체 부위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눈에 대한 관용 표현이 가장 많이 있어서 눈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권익호(1997)[12]에서는 눈에는 민족의 전통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고 하면서 수세기를 거쳐서 받아 이어져 온 눈의 표정에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각인된 것이라고 하였다. 마음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눈에 모아 표현하는 것은 의식적·무의식적인 것에 상관없이 인간 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일본어에서 표현에는 간접적인 것이 많이 보이지만 한국어에서 표현에는 직접적인 것이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우경숙(1985)[13]에서는 눈에 관한 관용구를 한일 양국 어의 의미상에서 의미와 용법이 완전히 같은 것과 약간의 의미와 대응 어휘의 차이가 있는 것. 의미의

---

9) 森田良行(1966)「慣用的な言い方」 『講座日本語教育 第4巻』 早稲田大學語學研究所 p.72
10) 星野命(1976)「身体語彙による表現」 『日本語講座第4巻』 大修館書店 pp.155-176
11) 大月実(1987)「慣用句にあらわれる身体」 『言語生活』 1号 大修館書店 p.40
12) 권익호(1997)「目に関する身体語彙の慣用句」 『일본연구 12집』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p.170
13) 우경숙(1985) 慣用語句としての「耳・目」と「귀・눈」の意味考察と教授法について 『國際大學 論文集 第13輯』 pp.92-113

차이가 큰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렇게 분류한 것에서 각각 명사형(台風の目)과 형용사(目が高い)에 연결된 것. 동사(目を疑う)와 연결된 것으로 나누어 그 예문을 제시하고 어휘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目が高い」의 눈은「물건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힘. 즉 감식력」을 나타내고 한국어에도「감정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눈에 관한 한일 관용구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대응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강조하였고 학습자들의 이해 심도를 향상하려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임팔용(1998)[14]에서는 각 신체 어휘의 용례를 분석하여 감정과의 결부 양상을 파악하였고 특히 신체 어휘는 크게 「頭部」「胴體部」「四肢部」「全身部」로 분류하면서「頭部」의 눈· 입· 얼굴· 머리· 귀· 코· 목」 7항목을 중심으로 양국 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를 대조 고찰하여 의미를 분석하기도 했다.

배도용(2002)[15]에서는 한국어의 신체 어휘 가운데 다의어 「눈」을 대상으로 하여 눈의 일반적인 표현과 관용 표현, 속담, 파생어까지 포함하면서 '눈'의 중심 의미를 논리적으로 구조화시켰다. 그 내용은 가). 형태면 : 사람의 얼굴에서 코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나뉘어 있으며 타원형의 꼴을 하고 있다(目) 나). 구성면 : 눈알, 눈동자, 눈초리, 눈시울, 눈까풀, 눈썹, … 다). 기능 면 : 사람의 모양을 분간하는 능력이 있다(眼)고 분류하였다. 그리고 의미 확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택호(2004)[16]에서는 한일 양 언어에서「눈」과「目」을 사용한 관용 표현들은 눈을 통한 어떤 구체적인 동작이라든가 형상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어떤 사실을 지시하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를 먼저 범위로 시작하여 표적, 안목, 대면, 처사, 마음, 수면, 핀잔, 행운, 결말로 10가지로 분류하여 관용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대조 고찰하기도 하였다.

이명옥(2007)[17]에서는 「目」에 얽힌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 일본인이 대면해서 말할 때 상대의 눈을 될 수 있는 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인은 대부

---

14) 임팔용(1998) 「日・韓 身體語彙 慣用句의 對照 考察1」 『日本文化硏究 第13輯』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센타 日本硏究所 p.275
15) 배도용(2002)「多義語 '눈'의 意味 擴張 硏究」『談話와 認知 第9卷1號』 談話・認知言語學會 pp.51-76
16) 최택호(2004) 「韓・日 兩言語의 身體語彙를 使用한 慣用表現硏究」어문학사 pp.96-97
17) 이명옥(2007)「日本語と韓国語の慣用表現の差異」 笠間書院 p.64

분 자기주장을 눈으로 하고 분노는 바로 눈으로 나오는 것은 잘 알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한국인의 기질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진다고 하였다. 일본과 한국이라는 문화의 차이 중에서 눈을 사용한 관용적인 표현은 어떤 뉘앙스를 나타내고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고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영역별로 구분하여 비교 대조한 연구이었다.

김현수(2012)[18]에서는 관용구로서의「目」과 「눈」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目」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 독립한 한 단어로서의 의미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특히 연어에 포함된 「目」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目が悪い」는「目」 대신에「視力」을 넣으면「視力が悪い」가 되어 전체적인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目が悪い」는 그 개개의 의미에서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連語」라고 말할 수 있어서 눈이라는 단어의 연어를 중심으로 강조하였다.

森田良行(1966)[19]에서는“慣用表現は文法や語彙の知識のみでは解決がつかない。また、慣用表現はそのとるべき助詞や呼応する表現形式が決まっている”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관용 표현은 조사나 호응하는 표현 형식이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大月(1987)[20]에서는“目は内に秘める感情・意志を目ほど雄弁に語るものはない。そのため目に関する慣用句・諺・象徴が耳や鼻に関するものよりも圧倒的に多い。また、目は身体の他の部分のメタファーとして機能する場合もある。라고 하여 눈이 화자의 감정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과 은유로서 기능도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田中康仁・吉田 將(1987)[21]에서는 慣用表現として同定するにあたっても文の内容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がある。これは慣用表現と他の語の共起関係によって判別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等、同定する方法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고

---

18) 김현수(2012) 日本語の「目」と韓国語の「눈」の意味拡張の様相 『日語日文學56輯』 大韓日語日文學會 p..24
19) 森田良行(1966)「慣用的な言い方」 『講座 日本語教育 第26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p.64
20) 大月実(1987)「慣用句にあらわれる身体」 『言語生活』 1号 大修館書店 pp.41-42
21) 田中康仁·吉田 将(1987)「慣用表現について」『情報処理学会研究報告情報学基礎 (FI) 』 姫路短期大学 p.6

하여 관용표현이 다른 말과의 공기 관계에 의해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3 연구 방법 및 대상

1.3.1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먼저 신체 관용구 중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용표현을 연구 자료에서 표집을 해서 신체 관용구별로 분류한다. 분류한 신체 관용구를 중심으로 한 관용표현을 조사별로 분석하고 한일 양국의 예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통사적 결합으로 구성된 관용표현 구조의 형태를 문법적이고 논리적인 정형적 구조와 비문법적인 비정형적 구조 형태로 구분하고 문법적인 형태가 없는 단순한 무정형적 구조로 구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 관용표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사별로 표현되는 관용구의 표현을 분석하여 조사에 따라 어떤 관용구가 주류를 이루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분류된 형태에 따라 관용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일차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를 한국어 예문과 일본어 예문을 제시하고 의미를 비교하면서 관용구의 구조적인 면에서 조사의 의미와 역할까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신체에 관한 관용표현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오랜 생활 속에서 스며든 어휘의 맛까지를 그대로 살리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본다.

長谷川潔(1975)[22]도 관용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된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관용적인 표현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다른 외국어와 동일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용표현에서 나타난 조사의 의미에 따라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目が高い,目は高い,目も高い 에서 화자가 어떤 의미로 말하고자 했는지 내용을 분석해 보고 조사의 접속 형태에 따라 표현의 의

22) 長谷川潔(1975) 「日英慣用句の考察」 國際交流基金 p.51

미가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용적인 표현에서 술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조사는 어법적으로 단어에 같이 붙어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활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활용해 온 여러 조사 가운데 제시한 관용표현에서 왜 이 조사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森田良行(1998)[23]는 「顔を立てる」とは、当人の顔を立たせる、際立たせるという意味で、世間の人々からはっきりそれと分かるようにして、その人物の面目を保たせることである」(「얼굴을 세우다」라는 것은, 본인의 얼굴을 세우거나, 어떤 경우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그걸 알도록 하고, 그 인물의 면목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を」라는 격조사이기 때문에 면목과 체면을 세운다는 전체적인 의미가 분명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용구문의 구성적 구조와 조사의 역할을 한 일 관용 표현의 예문을 들어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

1.3.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광의적으로는 신체어가 포함된 일반적인 관용표현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협의적으로는 연구하고자하는 범위로 축소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자료 선정은 일본어 자료는 白石大二(1983)[24]의 『国語慣用句辞典』과 梅棹忠夫.金田一春彦.阪倉篤義.日野原重明(2000)[25]의 『日本語 大辞典』과 旺文社(2020)[26]의 『標準ことわざ慣用句辞典』과 三省堂(2022)[27]의『故事ことわざ・慣用句辞典』으로 하고 한국어 자료는 신기철・신용철(1987)[28] 의 『새우리말 큰사전』을 원전으로 하여 수집하고자 한다. 신체 어휘는 우리 몸에서 외형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에서 신체 어휘를 활용한 관용적인 표현은 문학 작품 등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명옥(2007)[29]은「辞

23) 森田良行(1988)『日本人の発想、日本語の表現 - 「私」の立場がことばを決める-』 中公新書 p.57
24) 白石大二編 (1983)『国語慣用句辞典』 東京堂出版
25) 梅棹忠夫.金田一春彦.阪倉篤義.日野原重明(2000)『日本語 大辞典』 第2版 講談社.
26) 旺文社(2020)『標準ことわざ慣用句辞典』 旺文社
27) 三省堂(2022)『故事ことわざ·慣用句辞典』三省堂
28) 신기철・신용철(1987)『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29) 이명옥(2007) 위의 책 p.30

書から慣用的表現を抜き出し、その意味を説明するような今までの研究とは異なり、日本語と韓國語で出版された日本語と韓國語の文学作品から用例を抽出し、分析を行った。」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표현을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서 표집을 해서 구조적 유형별로 분류하고 활용 빈도수가 많은 관용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통해 용례를 제시하면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신체 관용구문에서 사용 빈도수가 많은 조사를 중심으로 「～が」,「～に」, 「～の」, 「～を」의 유형을 분석하고 한국어 조사는 일본어 조사에 상응하는 조사를 중심으로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3.3 한일 조사 비교

본 연구에서는 신체 관용구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형태에 따른 조사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신체 관용구에서 사용되는 조사는 거의 격조사의 범위를 넘지 않아서 한일 조사 비교도 격조사로 제한하기로 한다. 한국어 격조사와 일본어 격조사의 의미와 분류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조사에 대한 분류나 내용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학자에 따라 이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섭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양국의 일반적인 이론과 자료를 선정하여 근거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에 대해서만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조사의 의미와 종류를 비교하는데 국한하고자 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1.3.3.1 조사의 정의

<표 1> 한국어 조사의 정의

정의	출처	내용
조사	새우리말 큰사전	체언이나 부사 따위의 아래에 붙어서 그 다음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또는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대한민국나라말사전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도와주는 품사
	김승곤 전집	혼자서는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과 서술어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

<표 2> 일본어 조사의 정의

정의	출처	내용
助詞	日本語大辞典	活用のない付属語で、いろいろな語に付いて、語と語の関係を示したり、種々の意味を付け加えたりするもの。
	広辞苑	常に他の語のあとに付いて使われる語のうち、活用しない語。
	新明解国語辞典	助動詞と共に日本語の付属語用いられる、重要な語類。 自立語相互の関係を示したり文の陳述に関係したりする。

1.3.3.2 조사의 분류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조사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이론이 있어서 아래의 참고 자료에 근거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표 3> 한국어와 일본어 조사의 분류

한국어		일본어	
출처	종류	출처	종류
황화상[30]	격조사.보조사	西田直敏[31]	連体助詞.格助詞.副助詞.係助詞.間助投詞.終助詞 接続助詞
임지룡[32]외	격조사.보조사 접속조사	三浦つとむ[33]	格助詞.副助詞. 係助詞.
김승곤[34]	격조사.보조조사 접속조사.특수조사	新村 出[35]	格助詞.副助詞. 係助詞. 終助詞 間助投詞.接続助詞 並立助詞

이와 같은 분류에서 한국어나 일본어 분류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조사는 격조사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신체 관용구에서 조사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인데 역시 격조사에 대부분이어서 격조사를 중심으로

30) 황화상(2012) 『국어 조사의 문법』지식과 교양 p.28
31) 西田直敏(1977)『岩波講座 日本語7 文法Ⅱ』岩波書店 p.192
32) 임지룡 외(2005)『학교문법과 학교교육』박이정 p.4-5
33) 三浦つとむ(2000) 위의 책 p.275
34) 김승곤(2018) 위의 책 p.7-10
35) 新村 出(2018) 위의 책 p.212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3.3.3 격조사의 의미와 분류

한일 양국에서 격조사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분류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밝혀두고 아래와 같이 의미를 고찰해보고 격조사 분류를 하고자 한다.

(1) 격조사의 의미

격조사 의미는 주어의 문장 조직의 격을 보이는 조사로서 「이·가·을·를·의·로」 따위(새 우리말 큰 사전)로 설명하고 있다.

황화상(2012:24)에서는 조사의 통사적 특성에서 의미를 고찰하였는데 격조사는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三浦つとむ(2000:281)에서「一つの語に対して＜格助詞＞を重ねて用いることはありえない。語の資格や他の語との関係は、対象の事物の客観的なありかたから規定されているのだが、話し手・書き手がその立場において無自覚的ながらも選択し結びつけることが直接表現にあらわれているために、これを主体的表現に屬するものとして＜辞＞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격조사는 대상이나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에서 주체적 표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격조사의 분류

한국어 격조사 분류에 있어서 김승곤(2018:43)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4> 한국어 격조사 분류

	기능	조사용도	조사어	의미
격조사	직접기능 (문법기능)	주격조사	이/가 께옵서 께서.에서 이라서	두루.예사.±사람 높임.±사람 단체 장소.사람
		목적격조사	을 를(ㄹ) 에	자음 다음에 모음 다음에 때.행위.존재의 장소.공간

			에다가.에서	행위자.출발자.공간
		위치격조사	에게(서) 한테(서) 한테다(가), 께	예사.행위 대화의 상대 위치.대상.출발자 높임.행위.대화의 상대 유정성.방향
		연유격조사	으로써 으로서	도구.방편.원인.수단 자격.형편.신상
		방향격조사	으로	방향.변성
		비교격조사	과/와(하고) 보다 처럼 같이 만큼 만 마따나	대등비교. 우위비교 비슷함 동일함 대등함 하다·못하다 앞에 쓰임 동일
		공동격조사	과/와 하고	동사 앞에 쓰임.같이 함께 동사 앞에 쓰임
		관형격조사	의	소유. 생산자. 소재지…
	간접기능	호격조사	아/야 이시여.이여	예사.모음자음에 따라 구분됨 ±높임

일본어 격조사 분류에 관해서 新村 出(2018:212)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5> 일본어 격조사 분류

조사	구분	종류
격조사	文語	が、の、に、を、へ、と、より、から、 して、で
	口語	が、の、に、を、へ、と、より、から、で

한일 양국어의 격조사 분류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에서는 격조사의 용도에 따라 직접기능과 간접기능으로 나누었고 각 기능에서 조사 쓰임에 따라 주격조사에서부터 호격조사까지 세분해서 분류를 하였다.

일본어에서는 학교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문어와 구어에서 사용되는 격조사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2. 신체 관용구 정의와 형태 분류

2.1 신체 관용구의 정의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관용과 관용구의 의미는 자주 듣는 단어이어서 누구나 쉽게 경험적이거나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1 한국어의 정의

(1)「관용」 습관적으로 항상 씀. 「관용어」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문법에 맞지는 않으나 다년간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 「관용구」 관용어로 된 도막 말. (새 우리말 큰 사전)

(2)「관용」 관습적으로 쓰는 것. 「관용어」 일반적으로 늘 쓰는 말. 「관용구」 관습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독특한 뜻을 나타내는 어구. (대한민국 나라말 사전)

(3)「관용」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늘 씀. 「관용어」 습관적으로 쓰는 말. 「관용구」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단어들의 뜻 이외의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 (민중 국어사전)

(4)「관용」 버릇처럼 늘 쓰는 것. 또는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쓰는 것. (윤구병(1991) 보리 국어사전)

2.1.2 일본어의 정의

(1) 「慣用」 ふだんよく使うこと。使いなれていること。「慣用語」日常用いられる決まり文句。限られた社会の通用語。官庁語。学術語など。「慣用句」固定した言い回し。(『日本語大辞典』)

(2) 「慣用」 「慣用語」は、字義的 には、慣れ用いる、習慣として用いる、慣れ用いられる語、習慣として用いられる語である。(『国語慣用句辞典』)

(3) 古くから人々に言い慣わされたことば。教訓・諷刺などの意を寓した短句や秀句。(『広辞苑』)

(4) 「慣用句」は二つ以上のことば結びついて成り、全体として、ある決

まった特別の意味を持っています。それぞれ短い文句ですが、それらが時や所に合わせてじょうずに使われる時、日本語の表現が生き生きとした豊かなものになります。(『標準ことわざ慣用句辞典』)

(5)「慣用句」は、個々の単語から連想されるイメージを巧み行かしているのも多く、同じ内容を外の言葉で表すよりも受け手に印象を与えることができます。(『故事ことわざ・慣用句辞典』)

이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사전 상에 나오는 관용과 관용구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관용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와 비유적인 뜻을 가진 합성어 형태로 문장에서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을 하는 언어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신체 관용구의 형태 분류

신체 관용구의 분류는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를 외형적인 면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 부분과 상체 부분 하체 부분에 해당하는 관용표현을 조사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외 신체 내부 기관명에 관련된 관용구도 많이 있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도 있지만 분류하지 않기로 한다. 분류하고 선정하는 기준의 자료는 위에서 제시한 일본어 자료는 白石大二(1983)의『国語慣用句辞典』과 梅棹忠夫.金田一春彦.阪倉篤義.日野原重明(2000)의『日本語大辞典』旺文社(2020)의『標準ことわざ慣用句辞典』三省堂(2022)의『故事ことわざ・慣用句辞典』에서 중복 게재된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데 위의 4가지 자료에서 반복해서 수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 빈도수가 높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적인 선정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자에 따라 신체 부위별 분류 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526개의 관용구를 선정하여 조사별로 분류하기로 한다. 다만 중복 게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표현은 분류에 포함시키고 양국에 독특한 표현도 참고하고자 한다.

2.2.1 머리(頭)부분 관용구의 분류

2.2.1.1 머리(頭)의 관용구 분류

머리(頭)의 부분에 해당하는 관용구 중에서 먼저 머리에 해당하는 빈도수가 높은 관용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6> 머리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頭	頭が上がらない	머리를 들 수 없다
	頭が良い(悪い)	머리가 좋다(나쁘다)
	頭が痛い	골치가 아프다
	頭が古い	생각이 오래되다
	頭が堅い	머리가 완고하다
	頭が切れる	머리가 좋다
	頭が下がる	머리가 수그러지다
	頭から爪先まで	머리부터 손톱 끝까지
	頭から水を浴びたよう	무서운 일을 당해 질겁한 모양
	頭から湯気を立てる	심하게 화를 내는 모양
	頭にある	머리에 있다
	頭に入れる	머리에 새겨 넣다
	頭に浮かぶ	머리에 떠오르다
	頭に置く	염두에 두다
	頭に来る	화가 치밀다
	頭に血が上る	머리에 피가 오르다
	頭に火が付く	머리에 불이 붙다
	頭の黒い鼠	머리 검은 쥐
	頭の上の蝿を追え	자기 일을 먼저 해라
	頭の天辺から足の爪先まで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頭を上げる	머리를 쳐들다
	頭を痛める	골치를 앓다
	頭を押さえる	억누르다
	頭を抱える	머리를 싸매다
	頭を掻く	머리를 긁다

	頭を下げる	머리를 숙이다
	頭を絞る	머리를 쥐어짜다
	頭を出す	머리를 내밀다
	頭を叩く	머리를 두드리다
	頭を出す	두각을 나타내다
	頭を使う	머리를 쓰다
	頭を悩ます	골머리를 앓다
	頭を撥ねる	미리 웃돈을 떼다
	頭を捻る	머리를 짜내다
	頭を冷やす	머리를 식히다
	頭を解す	머리를 쉬게 하다
	頭を丸める	머리를 깎다. 중이 되다
	頭を擡げる	두각을 나타내다

2.2.1.2 얼굴(顔)의 관용구 분류

얼굴(顔)에 관한 관용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표 7> 얼굴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顔	顔が合う	얼굴이 마주치다
	顔が良い	얼굴이 좋다
	顔が合わせられない	면목이 없다
	顔が売れる	얼굴이 팔리다
	顔が利く	말발이 서다
	顔が揃う	모두 모이다
	顔が立つ	체면이 서다
	顔が潰れる	체면이 깎이다
	顔が広い	교제 범위가 넓다
	顔から火が出る	얼굴이 화끈거리다.
	顔で笑って心で泣く	얼굴은 웃고 마음은 운다.
	顔に関わる	체면에 관계되다
	顔に出る	얼굴에 나타나다
	顔に泥を塗る	얼굴에 먹칠하기

	顔に紅葉を散らす	얼굴이 빨갛게 되다
	顔を合わせる	얼굴을 마주 대하다
	顔を売る	얼굴이 알려지게 되다
	顔を貸す	얼굴을 내밀다
	顔を利かす	얼굴을 이용하다
	顔をする	얼굴을 하다
	顔を出す	얼굴을 내밀다
	顔を立てる	체면을 세우다
	顔を繋ぐ	아는 관계를 유지하다
	顔を潰す	체면을 깎다
	顔を見せる	얼굴을 보이다
	顔を汚す	체면을 구기다

2.2.1.3 눈(目)의 관용구 분류

눈(目)에 관한 관용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표 8> 눈(目)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目	目が合う	시선이 마주치다
	目が明く	눈이 뜨이다
	目が有る	눈이 있다
	目が良い	눈이 좋다
	目が輝く	눈이 빛나다
	目が利く	눈이 예리하다
	目が眩む	눈이 어둡다
	目が肥える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다
	目が冴える	눈이 말똥말똥하다
	目が覚める	정신을 차리다
	目が据わる	응시하다
	目が高い	기준이 높다
	目が潰れる	시력을 잃다
	目が出る	행운이 돌아오다
	目が届く	눈길이 닿다

	目が飛び出る	눈이 튀어나오다
	目が留まる	눈이 멈추다
	目が無い	분별을 잃다
	目が離せない	눈을 뗄 수 없다
	目が光る	눈이 빛나다
	目が細くなる	화가 나다
	目が回る	아주 바쁘다
	目が物を言う	눈으로 말하다
	目から鱗が落ちる	본질을 알게 되다
	目から鼻へ抜ける	매우 약삭빠르다
	目から火が出る	눈에서 불이 번쩍나다
	目で物を言う	눈짓으로 의사소통하다
	目に余る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目に遭わす	따끔한 맛을 보여주다
	目に一丁字なし	글자를 읽을 능력이 없다
	目に見える	눈에 보이다
	目に浮かぶ	상상되다
	目に掛ける	목표로 삼다
	目に角を立てる	날카롭게 쏘아보다
	目に障る	눈에 거슬리다
	目に染みる	눈에 강하게 자극하다
	目に立つ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目に付く	눈에 어른거리다
	目に留まる	눈에 들다. 인상에 남다
	目に入る	눈에 들어오다
	目には目を歯には歯を	해를 입으면 상응하는 보복
	目に触れる	눈에 잡히다
	目にも留まらぬ	매우 빠른 모양
	目に物を言わす	눈짓으로 마음을 전하다
	目に物を見せる	따끔한 맛을 보이다
	目の色を変える	눈을 부릅뜨다
	目の上の瘤	눈엣가시
	目の黒いうち	살아있는 동안
	目のかたきにする	적의를 품다
	目の正月	눈요기
	目の毒	보면 해가 되는 것

	目の中へ入れても痛くない	아이들을 매우 예뻐하는 마음
	目の前が暗くなる	눈앞이 캄캄해지다
	目は口ほどに物を言う	눈은 입만큼 말을 한다
	目は心の窓	눈은 마음의 창
	目もあやに	눈부실 만큼
	目も合わず	시력도 떨어지고
	目を明ける	눈을 뜨다
	目を遊ばす	여기저기 바라보다
	目を疑う	눈을 의심하다
	目を奪う	주목을 끌다
	目を覆う	눈을 가리다
	目を落とす	눈길을 떨구다
	目を掛ける	보살피다
	目を配る	여기저기 살피다
	目をくらます	눈을 속이다
	目を覚す	눈울 뜨다
	目を三角にする	눈을 부라리다
	目を白黒させる	눈을 희번덕거리다
	目を据える	시선을 움직이지 않는다
	目を澄ます	응시하다
	目を付ける	노리다
	目をつぶる	묵인하다
	目を盗む	눈을 피하다
	目を離す	한 눈 팔다
	目を光らす	눈을 번뜩이다. 감시하다
	目を引く	눈을 끌다
	目を開く	진리를 깨닫다
	目を伏せる	눈을 내리깔다
	目を細くする	눈을 가늘게 뜨다
	目を丸くする	눈을 둥그렇게 뜨다
	目を回す	기절하다. 허둥지둥하다
	目を見張る	눈을 크게 뜨다
	目を遣る	시선을 주다

2.2.1.4 코(鼻)의 관용구 분류

코(鼻)에 관한 관용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표 9> 코(鼻)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鼻	鼻が胡坐を掻く	코가 책상다리를 하다
	鼻が利く	낌새를 잘 알아차리다
	鼻が高い	콧대가 높다
	鼻持ちがならない	제 역할을 못한다
	鼻がへこむ	아무소리 못하고 당하다
	鼻が曲がる	냄새로 코가 비틀어지다
	鼻であしらう	코 방귀를 뀌다
	鼻で笑う	코웃음치다. 냉소하다
	鼻に掛ける	자랑하다
	鼻に付く	역겹다
	鼻の先	바로 앞
	鼻の先で言う	코가 먼저 안다
	鼻の下が長い	여자에게 약하다
	鼻の下におさまる	코사이로 들어가다
	鼻を明かす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鼻を怒らす	화를 내다
	鼻をうこめかす	자랑하다
	鼻を折る	콧대를 꺾다
	鼻をかく	매우 손해를 보다
	鼻をかむ	코를 풀다
	鼻をくじく	콧대를 꺾다
	鼻をさす	코를 찌르다
	鼻をすする	코를 훌쩍거리다
	鼻を高くする	자만하다. 뽐내다
	鼻を突く	코를 찌르다
	鼻を鳴らす	킁킁거리다
	鼻をふさぐ	코를 막다
	鼻をつままれても分からな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2.2.1.5 귀(耳)의 관용구 분류

귀(耳)에 관한 관용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표 10> 귀(耳)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耳	耳が痛い	귀가 따갑다
	耳が痒い	귀가 가렵다
	耳が利く	잘 듣다
	耳が肥える	듣는 능력이 뛰어나다
	耳が遠い	귀가 먹다
	耳が早い	귀가 밝다
	耳がよごれる	귀가 더러워지다
	耳が悪い	귀가 멀다
	耳から口へ出る	바로 남에게 전한다
	耳に入れる	알리다
	耳に逆らう	귀에 거슬리다
	耳に障る	들어서 불쾌감을 느끼다
	耳にする	듣다
	耳に胼胝ができる	귀에 못이 박이다
	耳に付く	귀에 쟁쟁하다
	耳にはいる	들리다
	耳にとまる	들어서 마음이 움직이다
	耳の保養	귀에 보양
	耳を洗う	귀를 깨끗하게 한다
	耳を疑う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
	耳を打つ	귀를 망치다
	耳をおおいて鐘を盗む	귀 막고 방울 도둑질 한다
	耳を貸す	귀를 기울이다
	耳を聞く	평판을 듣다
	耳を傾ける	귀를 기울이다
	耳を濯ぐ	세속을 피해 은거하다
	耳を澄ます	귀를 기울이다
	耳を揃える	아구맞추다
	耳を立てる	귀를 기울이다
	耳をつぶす	듣고도 모른척한다
	耳を塞ぐ	듣지 않으려고 한다

2.2.1.6 입(口)의 관용구 분류

입(口)에 관한 관용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표 11> 입(口)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口	口が上がる	말 솜씨가 늘다
	口がうまい	말을 잘하다
	口がうるさい	세상 평판이 시끄럽다
	口が多い	필요이상 말이 많다
	口が奢る	입이 까다롭다
	口が重い	입이 무겁다
	口が掛かる	손님의 부름을 받다
	口が堅い	입이 무겁다
	口が軽い	입이 가볍다
	口が肥える	입이 사치스럽다
	口が寂しい	입이 심심하다
	口が過ぎる	실례되는 말을 하다
	口が酸っぱくなる	입에서 신물이 나다
	口が滑る	입을 잘못 놀리다
	口が干上がる	생활이 어렵게 되다
	口が減らない	말수가 많다
	口が曲がる	입이 비뚤어지다
	口が悪い	입이 험하다
	口から先に生まれる	말재간이 좋은 사람
	口から出す	입에서 꺼내다
	口では大阪の城も立つ	말로는 오사카 성도 세울 수 있다
	口と財布は締めるが得	입과 지갑은 닫을수록 득
	口と腹は違う	말과 속이 다르다
	口にあう	입에 맞다
	口にいる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다
	口にくし	말투가 얄밉다
	口にしく	핑계 삼다
	口にする	입에 대다

	口に出す	입에 담다
	口に絶つ	입에 대지도 않는다
	口に上る	사람들 이야기 거리가 되다
	口に乗る	남의 입에 오르다
	口に任せる	멋대로 지껄이다
	口の下から	말하자마자
	口の端にのぼる	소문의 대상이 되다
	口のはにかかる	화제에 오르다
	口のはにかける	입에 올리다. 평가하다
	口は口、心は心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음
	口は重宝	입은 보물
	口は災いの門	입이 화근이다
	口を開ける	입을 벌리다
	口を合わせる	말을 맞추다
	口を入れる	말참견 하다
	口を利く	소개하다. 중재하다
	口を切る	말을 꺼내다
	口をすごす	생계를 세우다
	口を滑らす	입을 잘못 놀리다
	口を添える	말을 거들다
	口を揃える	입을 모으다
	口を出す	말참견을 하다
	口を叩く	잘 지껄이다
	口をつつしむ	입 조심을 하다
	口を尖らせる	입을 삐쭉 내밀다
	口を閉ざす	입을 다물다
	口を拭う	알고도 모른척 하다
	口を糊する	입에 풀칠하다
	口をはさむ	말참견 하다
	口を開く	말하기 시작하다
	口を塞ぐ	입을 봉하다
	口を減らす	입을 줄이다

2.2.2 상체(上体)부분 관용구의 분류

2.2.2.1 팔(腕)의 관용구 분류

팔(腕)의 부분에 해당하는 관용구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관용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12> 팔(腕)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腕	腕が上がる	솜씨가 늘다
	腕がある	솜씨가 있다
	腕が利く	재주가 있다
	腕が立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腕が鳴る	팔이 근질근질하다
	腕に覚えがある	솜씨에 자신이 있다
	腕に縒りをかける	있는 솜씨를 다하다
	腕に任せる	솜씨가 계속되다
	腕を上げる	세게 치려고 한다
	腕を折る	팔을 꺾다
	腕を組む	팔짱을 끼다
	腕を拱く	팔짱끼고 구경만하다
	腕をさする	솜씨를 내려고 한다
	腕を鳴らす	솜씨를 자랑할 기회를 노리다
	腕を伸す	솜씨를 신장시키다
	腕を振るう	솜씨를 발휘하다
	腕を磨く	솜씨를 닦다

2.2.2.2 손(手)의 관용구 분류

손(手)의 부분에 해당하는 관용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13> 손(手)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手	手が上がる	솜씨가 늘다. 주량이 늘다
	手が空く	한가해지다
	手がある	수단 방책이 있다
	手が掛る	손이 많이 가다
	手が利く	재주가 있다
	手が切れる	관계가 끊어지다

	手が込む	잔손이 많이 가다
	手が付く	일이 시작되다
	手がつけられない	손쓸 수가 없다
	手が出ない	방법이 없다
	手が届く	살 수 있다
	手が無い	방법이 없다
	手が長い	손버릇이 나쁘다
	手が入る	손이 뻗다
	手が入れば足も入る	점점 깊이 관여하다
	手が離れる	관계가 없어지다. 일손을 놓다
	手が早い	재빠르다
	手が塞がる	딴 일에 손댈 수 없다
	手が回る	손이 미치다. 뻗치다
	手が悪い	방법이 좋지 않다
	手に汗を握る	손에 땀을 쥐다
	手に余る	힘에 부치다. 당해 낼 수 없다
	手に合わない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
	手に入る	자기 소유가 되다. 숙달되다
	手に入れる	자신의 소유로 하다
	手に負えない	힘에 부치다
	手に落ちる	남의 손에 들어가다
	手に掛かる	손에 걸리다. 살해되다
	手に掛ける	손수 다루다. 돌보다
	手にする	손에 넣다
	手に立つ	손에 감촉이 있다
	手に付かない	손에 잡히지 않다
	手に取るように	손에 잡힐 듯이
	手に成る	그 사람의 제작이 난
	手に乗る	어떤 수에 넘어가다
	手に渡る	남의 손에 넘어가다
	手の内を見せる	솜씨를 보이다
	手のうらを返す	손바닥을 뒤집듯 하다
	手の舞い足の踏む所を知らず	너무 좋아서 어쩔줄 모르다
	手も足も出ない	어쩔 도리가 없다
	手もなく	방법도 없이
	手も触れず	만지지도 않고

	手を上げる	손들다. 항복하다
	手を合わせる	합장하다. 애원하다
	手を入れる	손질하다
	手を打つ	손뼉을 치다. 타결짓다
	手を置く	손을 놓다. 수수방관하다
	手を返す	일이 아주 쉬운 모양
	手を掛ける	고생을 마다 않고 수고하다
	手を貸す	거들다. 도와주다
	手を借りる	손을 빌다. 도움을 받다
	手を切る	관계를 끊다
	手を下す	손수하다. 착수하다
	手を組む	팔짱을 끼다
	手を砕く	수단 방법을 강구하다
	手を加える	손질하다
	手を拱く	팔짱끼다. 수수방관하다
	手を食う	속다. 넘어가다
	手を染める	관계하다. 시작하다
	手を出す	손을 대다. 때리다
	手を尽くす	온갖 수단을 다하다
	手を束ねる	양손을 맞잡다
	手を突く	바닥을 짚다
	手を付ける	손을 대다. 착수하다
	手を取る	손을 잡다
	手を握る	손을 맞잡다. 화해하다
	手を抜く	빼먹다
	手を伸ばす	손을 뻗치다
	手を離れる	소유에서 벗어나다. 자립하다
	手を引く	손을 떼다
	手を広げる	범위를 넓게하다
	手を回す	수배를 하다. 손을 쓰다
	手を結ぶ	손을 잡다. 동맹을 맺다
	手を焼く	애를 먹다
	手を緩める	태도를 완화하다
	手を汚す	부정한 짓을 하다
	手を煩わす	폐를 끼치다. 신세를 지다

2.2.2.3 가슴(胸)의 관용구 분류

가슴(胸)의 부분에 해당하는 관용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14> 가슴(胸)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胸	胸が明く	마음이 명랑해지다
	胸が熱くなる	가슴이 뭉클해지다
	胸が痛む	가슴(마음)이 아프다
	胸が一杯になる	가슴이 벅차오르다
	胸が躍る	가슴이 설레다
	胸がこがる	가슴이 타다
	胸が裂ける	가슴이 터지다
	胸が空く	가슴이 시원하다. 좋아지다
	胸が燃える	가슴이 타다. 애타다
	胸が狭い	가슴(마음)이 좁다
	胸がつかえる	가슴이 막히다
	胸が潰れる	가슴이 미어지다
	胸が鳴る	가슴이 울리다. 두근거리다
	胸が張り裂ける	가슴이 터질 지경이다
	胸が晴れる	가슴이 개운한 기분이 되다
	胸が広い	가슴이 넓다
	胸が塞がる	가슴이 근심으로 가득차다
	胸が焼ける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胸に余る	가슴이 개운치 않다
	胸に一物	마음속에 계략을 품음
	胸に浮かぶ	가슴에 떠오르다
	胸に描く	가슴(마음)에 그리다
	胸に納める	마음속에 담고 발설 안 한다
	胸に釘打つ	가슴에 못질 한다
	胸に刻む	가슴(마음)에 새기다
	胸に迫る	가슴에 치밀어 오르다
	胸に畳む	가슴(마음)속에 간직하다
	胸に手を当てる	가슴에 손을 얹다
	胸のつかえが下りる	가슴이 시원하게 되다
	胸の内を明かす	가슴속을 내비치다

	胸を痛める	가슴을 아프게 하다
	胸を打つ	가슴을 울리다. 감동을 주다
	胸を躍らせる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다
	胸を貸す	가슴을 쓸어내리다
	胸を焦がす	애를 태우다
	胸を借りる	연습 상대를 청하다
	胸を摩る	가슴을 문지르다
	胸を叩く	장담하며 응하다
	胸を突く	놀라다
	胸を潰す	가슴을 무너지게 하다
	胸を撫で下ろす	안심하다
	胸を張る	가슴을 펴다
	胸を膨らませる	가슴을 부풀게 하다
	胸を病む	가슴을 앓다
	胸を割る	흉금을 털어놓다
	胸を冷やす	간담이 서늘해지다

2.2.2.4 배(腹)의 관용구 분류

배(腹)의 부분에 해당하는 관용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15> 배(腹)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腹	腹が癒える	화가 가라앉다
	腹が痛い	배가 아프다
	腹が居る	화가 가라앉다
	腹が大きい	도량이 넓다
	腹が來た	배 고프다
	腹が下る	설사하다
	腹が黒い	엉큼하다
	腹が空く	속이 후련하다
	腹が据わる	배짱이 두둑하다
	腹が立つ	화가 나다

	腹が出来る	배가 부르다. 결심이 서다
	腹が無い	담력이 없다
	腹が煮える	속이 끓다
	腹が張る	많이 먹어서 배가 곽 차다
	腹が膨れる	배부르다
	腹が太い	뻔뻔스럽다. 배짱이 두둑하다
	腹が減っては軍が出来ぬ	배가 고프면 활동할 수 없다
	腹が悪い	속이 좋지 않다. 기분이 나쁘다
	腹に入れる	뱃속에 넣다
	腹に一物	마음속에 엉큼한 계획
	腹に納める	마음에 간직하다
	腹に落ちる	납득이 가다
	腹に据えかねる	참을 수 없다
	腹に持つ	뱃속에 품다
	腹の内	마음 속
	腹の皮が捩れる	배꼽울 쥐다
	腹のすじを縒る	웃겨서 계속 웃는다
	腹の虫が治まらない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腹は借り物	신분은 아버지에게 달려있음
	背に腹は変えられぬ	큰 일을 위해 다른 일은 안된다
	腹も身の内	폭음 폭식을 삼가야 한다
	腹を合わせる	공모하다. 마음을 합치다
	腹を痛める	친자식을 낳다. 자기 돈을 쓰다
	腹を癒す	노여움이나 원한을 풀다
	腹を抱える	배꼽을 쥐다
	腹を貸す	화풀이 하다
	腹を決める	결심하다
	腹を切る	할복하다
	腹を括る	각오를 하다
	腹を拵える	배를 채우다
	腹を肥やす	배불리다. 치부하다
	腹を探る	상대방 마음을 떠보다
	腹を据える	굳게 결심하다. 가라앉다
	腹を立てる	화내다. 성내다
	腹を見抜く	상대방의 음모를 알다
	腹を見られる	자신의 심중이 간파되다

	腹を召す	할복 하시다
	腹を減らす	배를 움켜쥐다
	腹を読む	심중을 추측하다
	腹を縒る	포복절도하다
	腹を割る	흉금을 털어놓다

2.2.3 하체(下半身)부분 관용구의 분류

2.2.3.1 허리(腰)의 관용구 분류

허리(腰)의 부분에 해당하는 관용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16> 허리(腰)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腰	腰が有る	면류에 찰기나 탄력성이 있다
	腰が落ち着く	환경이나 직업이 안정되다
	腰が重い	엉덩이가 무겁다
	腰が折れる	허리가 부러지다
	腰が軽い	홀가분하다
	腰が砕ける	중단하다. 좌절하다
	腰が据わる	자리를 차지하다
	腰が高い	거만하다. 고자세이다
	腰が強い	쉽게 남에게 굴하지 않는다
	腰が無い	면이 쫄깃한 맛이 없다
	腰が抜ける	기력이 없어지다
	腰が張る	허리가 팽팽하다
	腰が低い	태도가 겸손하다
	腰が弱い	무기력하다
	腰に下げる	허리를 낮추다
	腰に付ける	자기 생각대로 하다
	腰を上げる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다
	腰を入れる	본격적으로 하다
	腰を浮かす	일어나려고 허리를 조금 들다
	腰を押す	뒤에서 부추기다
	腰を落ち着ける	어떤 자리에 정착하다
	腰を折る	허리를 구부리다

	腰を掛ける	엉덩이를 대고 쉬다
	腰を据える	차분히 일하다
	腰を抜かす	허리뼈가 빠지다. 놀라다
	腰を伸ばす	몸을 편히 하고 쉬다
	腰を引く	다리를 끌다
	腰を割る	허리를 굽히다

2.2.3.2 발(足)의 관용구 분류

발(족)의 부분에 해당하는 관용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17> 발(足)의 관용구 분류

명칭	일본어	한국어
足	足が有る	달리는 것이 빠르다
	足が上がる	일자리를 잃다
	足が重い	다리가 지치다
	足が地に付かな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
	足が滑る	발이 미끄러지다
	足が付く	꼬리가 잡히다
	足が強い	발이 튼튼하다
	足が出る	예산이 넘다. 탄로가 나다
	足が遠退く	발길이 뜸해지다
	足が絶える	인적이 끊기다
	足が棒になる	다리가 뻣뻣해지다
	足が向く	저절로 그쪽으로 향해가다
	足が弱い	다리가 약하다
	足下から鳥が立つ	뜻밖의 일이 일어나다
	足下から火がつく	발 아래부터 번지다
	足蹴にする	발길질을 하다
	足に任せる	발길 닿는대로 가다
	足下にも及ばない	발밑에도 미치지 못 한다
	足下に漬け込む	약점을 노리다
	足下に火が付く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足下の明るい内	날이 어둡기 전에

	足の踏み場もない	발 들여놓을 자리 하나 없다
	足を洗う	발을 빼다
	足を痛める	발을 다치다
	足を入れる	발을 들여놓다
	足を奪われる	발이 묶이다
	足を掛ける	발을 딛다. 다리를 걸치다.
	足を食われる	발을 다치다
	足を組む	다리를 꼬고 앉다
	足を掬う	발을 걸다
	足を知らずして靴をつくる	발을 모르고 신발을 만든다
	足を空に	기쁨에 들떠있다
	足を出す	발을 뻗다
	足を付ける	관계를 맺다
	足を突っ込む	발을 집어넣다
	足を止める	발을 멈추다
	足を取られる	제대로 걷지 못한다
	足を抜く	관계를 끊다
	足を延ばす	멀리 발길을 뻗치다
	足を運ぶ	들르다. 일부러 방문하다
	足場を固める	기반을 굳히다
	足場を失う	기반을 잃다
	足を引く	발을 끌다
	足を引っ張る	방해를 하다
	足を踏み入れる	발을 들여놓다
	足踏みをする	발걸이를 하다
	足を向ける	발을 뻗다
	足を休める	걷는 것을 멈추고 휴식하다

3. 신체 관용구의 조사 분류와 기본 구조 형태

위의 <표 6>에서 <표 17>까지 분류한 526개의 관용구에서 조사가 사용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관용구 표현에서 주어+조사+술어의 기본적인 구조인 정형적(定型的. formal)인 형식을 갖춘 구조(structure)와 어느 하나가

생략된 비정형적(非定型的)인 것과 단순한 의사전달을 위한 무정형적(無定型的)인 것을 분류해서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과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3.1 신체 관용구의 조사별 분류

한일 신체 관용구에 대한 부위별 분류 형태나 숫자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임팔용(2004)[36]은 양국어의 신체어휘 관용구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8>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 총수

	두부	동체부	사지부	전신부	합계
일본어	432예(48%)	124예(14%)	237예(26%)	114예(13%)	907예
한국어	311예(50%)	103예(16%)	142예(23%)	70예(11%)	626예

위의 <표 18>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두부(머리부)에 해당하는 관용구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알 수 있었고 다음이 사지부였다. 총 1,533예의 관용구를 분류하였는데 여기서는 각 부위마다 몇 몇 주요 항목으로 한정하여 비교 대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용구의 예보다도 관용구의 조사가 품사별로 사용된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위의 <표 6>에서 <표 17>까지 분류한 내용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9> 일본 신체어의 품사별에 따른 조사별 분석 현황

	조사	품사				
		동사형	형용사형	명사형	부정형	합
신체어	が	107	43	x	7	157
	から	10	x	2	x	12
	に	78	x	4	5	87

36) 임팔용(2004)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연구」 제이엔씨 p.29

	の	12	1	17	4	34
	を	216	x	x	1	217
	その外	10	x	5	4	19
	합	433	44	28	21	526

위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어 중 동사형이 조사「を」다음에 오는 형태가 213개로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표현의 형태이고 품사별로도 428개가 있어서 82%를 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신체 관용구는 동사의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의 의미를 갖고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럼 한국의 신체어에 접속되어 있는 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두부(頭部)에 해당하는 눈, 머리, 얼굴, 코의 관용적인 표현에서만 한정해서 조사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는 신기철 · 신용철(1987)[37]의『새 우리말 큰 사전』을 바탕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표 20> 한국 신체어 눈, 머리, 얼굴, 코의 조사 현황

신체명					
조사	눈	머리	얼굴	코	합
이, 가	25	7	2	9	43
에	22	4	2	2	30
의	x	1	x	x	1
을,를	17	18	5	5	45
기타	2	1	x	2	5
합	66	31	9	18	124

위의 <표 20>에서 살펴보면 눈에 관한 표현이 66개로 53%로 나타나서 눈에 관

37) 신기철·신용철(1987) 위의 책. p.724 p.1131 p.2302 p.3363

한 관용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눈의 관용표현 중에서는「이, 가」와 「에」가 47개로 71%로 나타난 것은 보면 눈에 관한 주관적인 표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 중에서는 「을, 를」은 45개로 약 36%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역시 일본어 동사형에서 「を」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듯이 한국어에서도 조사 「을, 를」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신체 관용구 중에 조사 활용의 빈도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조사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3.1.1 ～が의 조사 관용구 분류

관용구의 조사 분류는 위의 <표 6>에서 <표 17>까지의 형태 분류를 근거로 하여 조사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1> ～が의 조사 관용구 품사별 분석

조사	동사형	형용사형	부정형
が	顔が合う	顔が良い	頭が上がらない
	目が合う	目が良い	顔が合わせられない
	腕が上がる	頭が痛い	鼻持ちがならない
	手が上がる	腹が痛い	手がつけられない
	足が上がる	耳が痛い	手が出ない
	口が上がる	口が甘い	目が離せない
	手が空く	口が煩い	口が減らない
	胸が空く	口が多い	
	目が明く	腹が大きい	
	鼻が胡坐を掻く	足が重い	
	胸があつくなる	頭が重い	
	足がある	口が重い	
	腕がある	腰が重い	
	腰がある	口が堅い	
	手がある	口が軽い	
	腹が癒える	腰が軽い	
	胸が痛む	耳が痒い	
	目が有る	口が寂しい	
	胸が一杯になる	胸が狭い	

	腹が居る 顔が売れる 口が奢る 腰が落ち着く 胸が躍る 腰が折れる 目が輝く 口が掛かる 手が掛る 腕が利く 顔が利く 手が利く 鼻が利く 耳が利く 目が利く 腹が來た 頭が切れる	腰が高い 鼻が高い 目が高い 足が強い 腰が強い 耳が遠い 腰が無い 目が無い 手が無い 手が長い 手が早い 耳が早い 腰が低い 顔が広い 胸が広い 足が弱い 腰が弱い	

3.1.2 ～に의 조사 관용구 분류

～に의 조사 관용구는 위의 <표 6>에서 <표 17>까지의 형태 분류를 참고하여 품사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2> ～に의 조사 관용구 품사별 분석

조사	동사형	명사형	부정형
に	口にあう 胸に手を当てる 手に余る 胸に余る 目に余る 腹に一物 口にいる 頭に入れる 手に入れる 腹に入れる	目に一丁字なし 胸に一物 手に取るように 目には目を歯には歯を	手に合わない 手に負えない 足下にも及ばない 手に付かない 目にも留まらぬ

	耳に入れる 目に物を言わす 胸に浮かぶ 目に浮かぶ 胸に釘打つ 頭に置く 胸に納める 腹に納める 手に落ちる 腹に落ちる 腕に覚えがある 胸に描く 目に触れる 足に任せる 腕に任せる 目に物を見せる 腹に持つ 手に渡る		

3.1.3 ～の의 조사 관용구 분류

～の의 조사 관용구는 위의 <표 6>에서 <표 17>까지의 형태 분류를 참고하여 품사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3> ～の의 조사 관용구 품사별 분석

조사	동사형	형용사형	명사형	부정형
の	鼻の先で言う 頭の上の蝿を追え 鼻の下におさまる 手のうらを返す 目の色を変える 口のはにかかる 口のはにかける 目の前が暗くなる 口の端にのぼる	鼻の下が長い	足下の明るい内 目の黒いうち 口の下から 目の上の瘤 頭の黒い鼠 頭のてっぺんから足の爪先まで	目の中へ入れても痛くない 手の舞い足の踏む所を知らず 腹の虫が治まらない 足の踏み場もない

	手の内を見せる 腹の皮が捩れる 胸の内を明かす		目の正月 目の毒 耳の保養 胸の霧 胸の煙	

3.1.4 ～を의 조사 관용구 분류

～を의 조사 관용구는 위의 <표 6>에서 <표 17>까지의 형태 분류를 참고하여 품사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4> ～を의 조사 관용구 품사별 분석

조사	동사형	부정형
を	鼻を明かす 腕を上げる 腰を上げる 手を上げる 口を開ける 目を明ける 耳を洗う 足を洗う 顔を合わせる 口を合わせる 手を合わせる 腹を合わせる 手を砕く 手を加える 腹を抱える 頭を痛める 足を痛める 胸を痛める 腹を痛める 足を入れる 口を入れる	鼻を抓まれても分からない

	腰を入れる 手を入れる 腹を癒す 腰を浮かす 足場を失う 胸を打つ	

3.2 신체 관용구의 기본 구조 형태 분석

신체 관용구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핵심이면서 내용은 함축성을 갖고 정곡을 살짝 건드리는 정도의 느낌을 준다. 그것은 마치 언어 사용의 마술사 같은 기교가 뛰어난 감정 표현의 절묘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용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메시지 전달의 최대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신체 관용구의 구조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관용구의 통사적 구조를 아래의 <표 20>과 같이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표 25> 신체 관용구의 통사적 구조 형태 분류

종류	구조	예문	비고
정형적 구조	N+P+V N+P+A N+P+D	顔を出す 目が高い 手に合わない	
비정형적 구조	N1+N2 N+V N+A	石＋頭 顔出して行く 目高い人	
무정형적 구조	N	頭、少し（足りない）	축약. 호소

위의 <표 25>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정형적 구조(formal structure)는 주어+조사+술어의 형식을 갖춘 정형적인 문장 구조로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N)와 조사(P)가 접속하여 용언(V.A)의 구조를 갖는 기본 방식이다.

土屋智行(2011)[38]에서 Wray(2002)[39]は，定型表現を複数の構成要素が連続または非連続的に組み上げられ，ひとつのまとまりとして記憶かつ発話されるような，既成の配列と定義している．ただし，定型性は必ずしも創造性と相反せず，むしろ意図的に構成要素の種類や配列が破られることで，創造的な言語使用が現れるとしている。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형표현의 정의를 하였는데 「정형」이라는 의미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정형적 구조의「정형」과 일치할 수 는 없지만「기성의 배열」이라는 근거에서 정형적 구조라고 명명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기성의 배열」의 규칙을 벗어나면 비정형적 구조라고 한 것이다. 비정형적 구조(informal structure)는 「N1+N2」와 같이 명사가 합쳐진 복합어 형태로서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구조가 아닌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하는 형태이고 이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표현이 되겠지만 구조 자체는 정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정형적인 문장 구조라고 한 것이다. 위의 예문처럼「顔出して行く」에서 「N+V」구조로 조사가 생략되는 것이어서 비정형적인 것으로 분류하고자 한 것이다.

무정형적 구조(unformal structure)는 그야말로 아무런 형식에 구애 없는 즉흥적인 감정 표현으로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것만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足、少し」라고 했다면 다리가 아파 주저앉는 시늉을 하거나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의미를 순간적으로 하는 표현일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장 형태가 되지 않는 구조의 표현 방식이고 일정한 방식이 있다고 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무정형적 구조라고 한 것이다.

3.2.1 정형적 구조 형태의 분석

정형적 구조는 위에서 정의한 대로 가장 일반적이고 형식을 갖춘 관용표현의 문장 구조로서 신체어휘 다음에 오는 술어가 조사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정형적인 구조를 갖는다.

---

38) 土屋智行(2011)「言語の創造性の基盤としての定型表現『認知科学 18巻2号』 p.370
39) Wray, A.(2002) 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Cambridge Univ Pr.재인용

3.2.1.1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동사 분석

신체 관용구에서 일반적인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6>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동사의 분석

신체어	(1)조사	동사	(2)조사	동사	비고
腕	が	上がる	を	上げる	
手	に	入る	を	入れる	
目	が	輝く	を	輝かす	
顔	が	立つ	を	立てる	
耳	が	留まる	に	留める	
胸	が	開く	を	開く	예외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ガ격 (1)조사가 ヲ격 (2)조사로 바뀌면 동사는 의미에 따라 바뀌는 기본 구성을 갖는 구조이다.

3.2.1.2.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형용사 분석

신체 관용구에서 일반적인 정형적 구조로서 신체 명칭에 접속된 조사와 형용사의 관계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7>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형용사의 분석

신체어	조사	형용사	비고
頭 顔 目 鼻 口 腕 胸 腹 腰 手 足 その他	が	良い 悪い 軽い 重い 痛い 高い 厚い 早い 弱い 無い 長い 強い 広い その他	대표적인 형용사

신체 관용구 표현 중에서 신체명칭과 접속된 형용사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조사의 사용만큼은 개별적인 표현이거나 특수한 표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표현에서「が」라는 조사를 사용하는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형적인 관용표현에서 형용사는 명사와 수식하여 어미에 오기 마련이지만 표현에 따라서

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갖기도 한다.

3.2.1.3.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부정 분석

정형적 구조에서 부정 표현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인체 명칭에 접속된 조사와 술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 28> 정형적 구조의 조사와 부정의 분석

부정형					
명칭	조사	표현	명칭	조사	표현
頭	が	上がらない	鼻	を	抓まれても分からない
顔		合わせられない	手	に	合わない
鼻持ち		ならない	手		負えない
手		つけられない	足下		及ばない
手		出ない	手		付かない
目		離せない	目		(も)留まらぬ
口		減らない			
足	の	踏み場もない			
手		舞い足の踏む所を知らず			
腹		虫が治まらない			
目		中へ入れても痛くない			

3.2.2 비정형적 구조 형태의 분석

비정형적 구조는 위에서 정의한 대로 주어라든가 조사가 생략된 비정형적인 문장 구조의 관용표현으로서 신체어휘 앞뒤에 바로 술어와 접속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의사 전달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

3.2.2.1 신체 명사의 합성어 구성 구조 분석

합성어[40]는 둘 이상의 낱말이 하나로 결합되어 이루는 낱말로 떡국·팥죽·냇가 따위라고 하였다. 단일어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뜻을 갖는 복합어 성격 기능이라고 본다.

40) 신기철·신용철(1987) 위의 책 p.3653

< 표 29> 한국어 신체 명사 합성어 구성 구조

명사	일본어	한국어	비고
머리털	髪	머리+털	
속눈썹	まつけ	속+눈썹	
눈꺼풀	まぶた	눈+꺼풀	
목구멍	喉	목+구멍	
눈동자	瞳	눈+동자	
눈꼬리	めじり	눈+꼬리	
콧구멍	鼻孔	코+구멍	
등허리	背と腰	등+허리	
뱃살	腹の肉	배+살	
손목	手首	손+목	
팔다리	手足	팔+다리	
발바닥	足の裏	발+바닥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어가 일본어로는 한자 한 글자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모두 두 단어가 모여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2.2.2 비정형적 구조의 구성 형태

<표 30> 비정형적 구조의 형태

비정형적 구조	
抜き足	甘いことば
渋い顔・声	あき足りない
ひねた顔・声	悲しい目
眼高手低	心ゆくばかり
言い暮らす	ふき出して笑う

관용표현에서 비정형적 구조는 「N+N」「N+V」「N+A」「A+N」「V+V」의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는「渋い顔」(国語慣用句辞典:109)「渋い物を食った顔。不満足・不承知・不賛成・不快の様子。」에서와 같이 주어와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를 비정형적인 구조라고 정의한 것이다. 의미상으로는 불만족이나 불쾌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고 '渋い顔ですね。' 라고만 해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한 표현인 것이다.

3.2.3 무정형적 구조 형태의 분석

무정형적 구조의 형태는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표 31> 무정형적 구조의 형태

무정형적 구조	
一杯食う	いいのさ
胸三寸	しない先
うんという	口だけ
四の五のいう	ないわけだ

임홍빈(2007)[41]에서는 명사구를 조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격도 없는 명사구로서 무조사구로 보았다. 고 하면서 무조사구는 정규 논항으로 분석될 수 없는 것으로 통사 분석의 나머지인 잉여 성분이며 담화 화용적 원리에 의하여 제시어의 이조인 주제(제시 주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나 밥 먹는다」는 통사구조를 갖는 것인데「나,밥」을 격이 없는 명사구로 가능한지,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인데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형식 없이 전달되는 형태이고 일정한 틀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무정형적 구조라고 정의하였고 어법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간단명료한 장점도 있다고 본다.

41) 황화상(2012)『국어 조사의 문법』지식과 교양 p.229

4 신체 관용구의 형태와 조사의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체 관용구 중에서 정형적 구조를 가진 표현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2.2의 신체 관용구의 형태를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 6>에서 <표 17>까지 내용 중 사용 빈도수가 높고 4개의 자료에 중복 게재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분류한 신체 관용구의 전체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서는 눈(目・眼)과 머리(頭) 얼굴(顔)을 중심으로 한다. 상체 부분에서는 가슴(胸) 배(腹)를 중심으로 하고 하체 부분은 발(足)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정하기로 한다. 방법은 한일 양국어의 예문을 들어 조사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4.1 눈(目・眼)의 관용 표현 유형 분석

눈(眼의)의 조어(祖語)[42]에 대하여「눋」이다. 국어에서는 끝소리 ㄷ이 ㄴ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맨 먼저「눈(目・眼)」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눈을 통해 상황과 느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32〉 눈(目)에 관한 관용구 유형별 조사 분류[43]

구분	A형	B형	C형	D형	E형
형태	目+が+述語	目+に+述語	目+の+述語	目+は+述語	目+を+述語
예문	目が合う 目が明く 目が有る 目が良い 目が輝く 目が利く 目が眩む 目が肥える	目に余る 目に遭わす 目に一丁字なし 目に見える 目に浮かぶ 目に掛ける 目に角を立	目の色を変える 目の上の瘤 目の黒いうち 目のかたきにする 目の正月 目の毒 目の中へ入れて	目は口ほどに物を言う 目は心の窓	目を明ける 目を遊ばす 目を疑う 目を奪う 目を覆う 目を落とす 目を掛ける 目を配る

42) 韓国文化 상징사전(1992) 동아출판사 p.175
43) 이지은(2022)「한일 관용표현에서조사의 역할 비교 연구」『日語日文學硏究 第123輯』 韓國日語日文學會 P.87

	目が冴える 目が覚める 目が据わる 目が高い 目が潰れる 目が出る 目が届く 目が飛び 出る 目が留まる 目が無い 目が離せない 目が光る 目が細く なる 目が回る 目が物を 言う	てる 目に障る 目に染みる 目に立つ 目に留まる 目に物言わす	も痛くない 目の前が暗くな る		目をくらます 目を覚す 目を三角にする 目を白黒させる 目を据える 目を澄ます 目を付ける 目をつぶる 目を盗む 目を離す 目を光らす 目を引く 目を開く 目を伏せる 目を細くする 目を丸くする 目を回す 目を見張る 目を遣る

〈표 33〉 눈의 유형별 분포 현황

유형	A형	B형	C형	D형	E형	합계
종류	23	12	9	2	27	73
비율	32%	16%	12%	3%	37%	100%

<표 34> 한국어 눈의 유형별 조사 분류(새 우리말 큰 사전)

형태	예문	종류
눈+이+술어	눈이 가다. 눈이 높다. 눈이 동그래지다. 눈이 뒤집히다. 눈이 맞다. 눈이 무섭다. 눈이 밝다. 눈이 어둡다. 눈이 꺼지다	9
눈+에+술어	눈에 거슬리다. 눈에 걸리다. 눈에 들다. 눈에 띄다. 눈에 불이 난다. 눈에 선하다.	11

	눈에 어리다. 눈에 익다. 눈에 설다. 눈에 쌍심지를 켜다.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	
눈+은+술어	눈은 있어도 망울은 없다.	1
눈+을+술어	눈을 감다. 눈을 굴리다. 눈을 뒤집다. 눈을 뜨다. 눈을 맞추다. 눈을 속이다. 눈을 붙이다. 눈을 팔다. 눈을 피하다. 눈을 꺼리다. 눈을 흘기다	11
눈+술어	눈 가리고 아웅하다. 눈 감으면 코 베어 먹을 세상.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눈 먼 놈이 앞장선다.	4

4.2 머리(頭)의 관용 표현 유형 분석

머리에 관한 한일 관용구 중에서 방언이나 비속적인 것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한정하고 사전과 관련 서적에서 머리에 관한 관용적인 표현을 추출해서 그 의미와 표현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용례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표 35> 머리에 관한 관용구 유형별 조사 분류[44]

구분	A형	B형	C형	D형
형태	頭＋が＋술어	頭＋に＋술어	頭＋の＋술어	頭＋を＋술어
예문	頭が上がらない 頭が良い(悪い) 頭が痛い 頭が古い 頭が固い 頭が切れる 頭が下る	頭にある 頭に入れる 頭に浮かぶ 頭に置く 頭に来る 頭に血が上る 頭に火が付く	頭の黒いねずみ 頭の上の蠅を追え 頭の天辺から足の爪先まで	頭を上げる 頭を痛める 頭を押える 頭を抱える 頭を掻く 頭を刈る 頭を下げる 頭を絞る 頭を剃る

44) 이지은(2021)「한일 관용구 표현의 어법 대조 연구」『日本語教育 第98輯』韓國日本語教育學會 p.222

				頭を揃える 頭を叩く 頭を出す 頭を使う 頭を悩ます 頭を撥ねる 頭を捻る 頭を解す 頭を丸める 頭をもたげる

〈표 36〉 머리의 유형별 분포현황

유형	A형	B형	C형	D형	합
개수	7	7	3	19	36
비율	19%	19%	9%	53%	100%

<표 37> 한국어 머리의 유형별 조사 분류(새 우리말 큰사전)

형태	예문	종류
머리+가+술어	머리가 가볍다. 머리가 굳다. 머리가 굵다. 머리가 돌다.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썩다.	6
머리+에+술어	머리에 들어가다. 머리에 서리가 앉다. 머리에 서릿발을 이다. 머리에 쓰다.	4
머리+의+술어	머리의 피도 마르지 않다.	1
머리+을(를) +술어	머리를 굽히다. 머리를 깎다. 머리를 내밀다. 머리를 모으다. 머리를 들다. 머리를 싸매다. 머리를 썩이다. 머리를 쓰다. 머리를 얹다. 머리를 흔들다. 머리를 짜다.	11
머리+술어	머리가 모시 바구니 되도록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른다 머리꼬리 없다 머리 삶으면 귀까지 익는다 머리 없는 놈 당기치례한다	5

4.3 얼굴(顔)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얼굴(顔)」의 관용 표현 형태에서 유형 분류의 원칙은 조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하였고, 조사의 형태에 따라 술어 부분에 접속하는 단어가 내포하는 관용적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38> 얼굴에 관한 관용구 유형별 조사 분류[45)]

구분	A형	B형	C형	D형	E형
형태	顔＋が+述語	顔＋から+述語	顔＋で＋述語	顔＋に+述語	顔＋を＋述語
예문	顔が合う 顔が赤い 顔が厚い 顔が好い 顔が売れる 顔が利く 顔が揃う 顔が立つ 顔が潰れる 顔が広い 顔が汚れる	顔から火が出る	顔で笑って心で泣く	顔に書いてある 顔に泥を塗る 顔に免ずる 顔に紅葉を散らす	顔を当たる 顔を赤くする 顔を合わせる（あわす） 顔を売る 顔を貸す 顔を利かす 顔を曇らす 顔をする 顔をそむける 顔を出す 顔を立てる 顔を繋ぐ 顔を潰す 顔を直す 顔を膨らす 顔を振る 顔を見せる 顔をよごす

〈표 39〉 얼굴의 유형별 분포현황

유형	A형	B형	C형	D	E형	합계

45) 이지은(2022)「한일관용구의 조사 역할과 기능 비교 연구」『日本語教育 第100輯』韓國日本語教育學會 p.87

종류	11	1	1	4	18	35
비율	31%	3%	3%	12%	51%	100%

<표 40> 한국어 얼굴의 유형별 조사 분류(새 우리말 큰 사전)

형태	예문	종류
얼굴+이+술어	얼굴이 간지럽다. 얼굴이 깎이다. 얼굴이 뜨겁다	3
얼굴+에+술어	얼굴에 똥칠한다. 얼굴에 모닥불을 담아 붓듯	2
얼굴+을+술어	얼굴값을 하다. 얼굴을 내놓다. 얼굴을 못 들다. 얼굴을 붉히다. 얼굴을 익히다.	5
얼굴+술어	얼굴 가죽이 두껍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2

4.4 가슴(胸)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가슴(胸)에 관한 관용구 중에서 일반적이고 널리 쓰이는 표현을 중심으로 한정하고 위에서 제시한 4권의 자료에서 중복 게재된 관용적인 표현을 추출해서 용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어+조사+술어」의 정형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대형 사고로 인한 슬픈 마음이나 괴로운 일들로 가슴 아팠던 추억들도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가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日本語 大辞典』(2000:2130)에서는「가슴」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頸と腹のあいだの部分。心理をつかさどると考えられている。」에서 가슴은「심리를 관장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새 우리말 큰사전』(1987:26)에서는 신체적인 설명 외에 「마음」「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가슴에 묻다」는「마음에 묻다」와 같은 정도로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된다. 이명옥(2007)[46]에서는 「胸」は「心臓や肺」を

46) 이명옥(2007) 위의 책 p.135

含む意味、「精神や感情の基盤」としての「心」の意味、「精神」を表す意味としてよく用いられる。라고 하였다. 이렇게「가슴」은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것에서부터 심리적인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의도를 위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본다.

이러한「가슴」에 대한 관용표현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41〉 가슴(胸)관한 관용구 유형별 조사 분류

구분	A형	B형	C형	D형
형태	胸+が+述語	胸+に+述語	胸+の+述語	胸+を+述語
예문	胸が明く 胸があつくなる 胸が痛む 胸が一杯になる 胸が躍る 胸がこがる 胸が裂ける 胸が空く 胸が狭い 胸がつかえる 胸が潰れる 胸が燃える 胸が鳴る 胸が張り裂ける 胸が晴れる 胸が広い 胸が塞がる 胸が焼ける	胸に余る 胸に一物 胸に浮かぶ 胸に描く 胸に納める 胸に釘打つ 胸に刻む 胸に迫る 胸に畳む 胸に手を 当てる	胸のつかえが 下りる 胸の内を明かす	胸を痛める 胸を打つ 胸を躍らせる 胸を貸す 胸を焦がす 胸を借りる 胸を摩る 胸を叩く 胸を突く 胸を潰す 胸を撫で下ろす 胸を張る 胸を膨らませる 胸を病む 胸を割る 胸を冷やす

〈표 42〉 가슴 유형별 분포 현황

유형	A형	B형	C형	D형	합계
종류	18	10	2	16	46

비율	39%	22%	4%	35%	100%

<표 43> 한국어 유형별 조사 분류(새 우리말 큰 사전)

형태	예문	종류
가슴+이+술어	가슴이 내려앉다. 가슴이 뜨끔하다. 가슴이 미어지다. 가슴이 뿌듯하다. 가슴이 선뜻하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찔리다. 가슴이 숯등걸이 되다.	8
가슴+에+술어	가슴에 깊이 간직하다.	1
가슴+을+술어	가슴을 앓다. 가슴을 에다 가슴을 짓찧다. 가슴을 잘 여미다. 가슴을 태우다.	5

4.5 배(腹)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배(腹)에 관한 관용구 중에서 일반적이고 널리 쓰이는 표현을 중심으로 한정하고 위의 자료에서 제시한 4권에서 중복 게재된 관용적인 표현을 추출해서 용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주어+조사+술어」의 정형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佐竹隆三(1984:22)[47]에서는「腹といっただけで、立腹・怒り・恨み・うっ憤・不平・不満を表すことがある」라고 서술하여「배」의 내재적 의미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화내고 원한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이「배」에 관한 관용구는 의미가 제한적이어서 활용의 폭이 좁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인용이 되는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하여「배」에 대한 관용표현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7) 佐竹隆三(1984)『腹と胸 -「身体語彙」ものしり辞典」- 大正大学出版部 p.22

〈표 44〉 배(腹)에 관한 관용구 유형별 조사 분류

구분	A형	B형	C형	D형
형태	腹+が＋述語	腹+に＋述語	腹+の＋述語	腹+を＋述語
예문	腹が癒える 腹が痛い 腹が居る 腹が大きい 腹が來た 腹が下る 腹が黒い 腹が空く 腹が据わる 腹が立つ 腹が出来る 腹が無い 腹が煮える 腹が張る 腹が膨れる 腹が太い 腹が減っては 軍が出来ぬ 腹が悪い	腹に入れる 腹に一物 腹に納める 腹に落ちる 腹に据えかねる 腹に持つ	腹の内 腹の皮が捩れる 腹のすじを縒る 腹の虫が 治まらない	腹を合わせる 腹を痛める 腹を癒す 腹を抱える 腹を貸す 腹を決める 腹を切る 腹を括る 腹を拵える 腹を肥やす 腹を探る 腹を据える 腹を立てる 腹を見抜く 腹を見られる 腹を召す 腹を減らす 腹を読む 腹を縒る 腹を割る

〈표 45〉 배의 유형별 분포 현황

유형	A형	B형	C형	D형	합계
종류	18	6	4	20	48
비율	38%	12%	8%	42%	100%

<표 46> 배의 한국어 배의 유형별 조사 분류(새 우리말 큰 사전)

형태	예문	종류

배+가+술어	배가 고프다. 배가 다르다. 배가 맞다. 배가 부르다. 배가 아프다. 배가 남산만 하다.	6
배+에+술어	배에 기름이 지다	1
배+를+술어	배를 곯다. 배를 내밀다. 배를 불리다. 배를 앓다. 배를 퉁기다	5

4.6 발(足)의 관용표현 유형 분석

발(足)에 관한 관용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쓰이는 표현을 중심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앞의 자료에서 제시한 4권에서 중복 게재된 관용적인 표현을 추출해서 용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주어+조사+술어」의 정형적인 구조를 가진 것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표 48〉 발(足)에 관한 관용구 유형별 조사 분류

구분	A형	B형	C형	D형
형태	足+が＋述語	足+に＋述語	足+の＋述語	足+を＋述語
예문	足が有る 足が上がる 足が重い 足が地に付かない 足が滑る 足が付く 足が強い 足が出る 足が遠退く 足が絶える 足が棒になる 足が向く 足が弱い	足蹴にする 足に任せる 足下にも及ばない 足下に漬け込む 足下に火が付く	足下の明るい内 足の踏み場もない	足を洗う 足を痛める 足を入れる 足を奪われる 足を掛ける 足を食われる 足を組む 足を掬う 足を知らずして 靴をつくる 足を空に 足を出す 足を付ける 足を突っ込む

				足を止める 足を取られる 足を抜く 足を延ばす 足を運ぶ 足場を固める 足場を失う 足を引く 足を引っ張る 足を踏み入れる 足踏みをする 足を向ける 足を休める

〈표 49〉 발의 유형별 분포 현황

유형	A형	B형	C형	D형	합계
종류	13	5	2	26	46
비율	28%	11%	4%	57%	100%

<표 50> 발의 한국어 유형별 조사 분류(새 우리말 큰 사전)

형태	**예문**	**종류**
발+이+술어	발이 내키지 않는다. 발이 길다 발이 의붓자식보다 낫다. 발이 너르다 발이 뜨다. 발이 맞다. 발이 빠지다. 발이 익다. 발이 잦다. 발이 짧다.	10
발+을+술어	발을 끊다. 발을 달다. 발을 맞추다 발을 벗다. 발을 보이다. 발을 붙이다 발을 빼다. 발을 씻다. 발을 타다 발을 펴다.	10
무형식	발 벗고 나서다. 발 벗고 대들다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4

5. 한일 신체 관용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용구는 일반적으로 통사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사용하고 단어의 변형이나 첨삭은 어렵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조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52〉 눈(目)의 관용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비교

대상	조사	용언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目	が	高い	안목이 높다	鑑識眼がある
		無い	분별력이 없다	鑑識眼がない
		輝く	눈이 부시다. 빛나다	目がぴかぴか光る
		眩む	욕심이 앞서다	目が暗くなる
		覚める	눈이 뜨다. 알게 되다	本心に立ち返る
		回る	매우 바쁘다	非常に忙しい
	に	遭わす	눈으로 혼내다	痛い目に合わす
		浮かぶ	눈에 떠오르다	思いを描く
		角を立てる	눈에 모를 세우다	目の端をつり上げる
		留まる	눈에 띄다	目に付く
		見える	눈에 보이다	はっきり見える
		ものを言わす	눈으로 말하다	目で気持を伝える
	の	色を変える	흥분하다	目付きを変える
		上の瘤	귀찮은 존재	邪魔になる人
		前が暗くする	절망적이다	絶望感に襲われる
		かたきにする	적개심을 갖다	見ると敵意を示す
	は	心の窓	마음의 창	目に現れる
		口ほどにものを言う	눈은 입만큼 말 한다	目は心の動きを現れる
	を	遊ばす	눈을 굴리다	あちこちを眺める

		疑う	눈을 의심하다	不思議に思う
		落とす	눈을 내리깔다	視線を下げる
		覚す	잠을 깨다	眠りからさめる
		三角にする	화를 내다	怒って目付きをする
		光らす	눈을 번득이다	目を光るようにする
		細くする	눈을 가늘게 하다	目を細かくして笑う
		丸くする	놀라다	目を大きく開く
		回す	눈을 돌리다	氣絶する
		見張る	눈을 부릅뜨다	目を大きくして見る

<표 53> 머리(頭)의 관용표현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비교

대상	조사	용언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頭	が	上がらない	머리를 들 수 없다	面目がない
		痛い	머리가 아프다	事で頭が痛い
		古い	머리가 고지식하다	時代に遅れる
		下る	머리가 숙여지다	心から敬服する
		切れる	머리가 뛰어나다 (머리가 잘 돌아가다)	判断力が鋭い
	に	入れる	머리에 넣다	よく理解する
		来る	머리에 감이 오다	頭にやって来る
		血が上る	흥분이 되다	冷静さを失う
	の	黒い鼠	물건을 훔친 사람	物を盗む人
		上の蝿を追え	제 일이나 해라	自分の事をやろ
		天辺から足の 爪先まで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上から下まで
	を	上げる	머리를 들다	才能を発揮する
		押える	머리를 억누르다	自由にさせない
		抱える	머리를 감싸다	考え込む
		下げる	머리를 숙이다	感服する
		絞る	머리를 짜다	いい考えを出す
		撥ねる	이익을 가로채다	利益の一部をかすめ 取る
		捻る	머리를 짜내다	くふうする

		ほぐす	머릿속이 개운하다	柔軟性をもたせる
		丸める	머리를 깎다	頭髪を剃る
		もたげる	머리를 쳐들다	表面に出て来る

<표 54> 얼굴(顔)의 관용표현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비교

대상	조사	용언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顔	が	赤い	얼굴이 달아오르다	恥ずかしい顔
		厚い	얼굴이 두껍다	面の皮が厚い
		好い	얼굴이 좋다	評判がいい
		広い	안면이 넓다	顔が知られている
		合う	얼굴이 마주치다	対戦する
		売れる	얼굴이 알려지다	顔が売れている
		立つ	면목이 서다	面目が立つ
		潰れる	면목이 없게 되다	面目がなくなる
		汚れる	면목이 말이 아니다	顔がきたなくなる
	から	火が出る	분노하다	顔が真っ赤になる
	に	書いてある	말하지 않아도 안다	顔つきを見れば分かる
		泥を塗る	얼굴에 먹칠하다	面目をつぶす
		免ずる	체면 때문에 봐 준다	面目のために許す
	を	赤くする	부끄러워하다	恥ずかしがる様子
		合わせる	얼굴을 마주하다	顔と顔とを合わせる
		売る	알려진 얼굴	有名な顔
		する	표정을 짓다	そういう顔になる
		出す	얼굴을 내밀다	会合いに出席する
		立てる	체면이 서다	面目が立つ
		潰す	난감하게 만들다	体面を失う
		汚す	곤혹스러운 얼굴	面目を失わせる

<표 55 > 얼굴에 관한 일본어와 한국어 조사 사용 비교

구분	대상	조사 1	술어	조사 2	술어
일본어	顔	が	合う	を	合わせる

			赤い		赤くする
			売れる		売る
			出す		立てる
한국어	얼굴	이	마주치다	을	합치다
			빨갛다		빨갛게 하다
			팔리다		팔다
			서다		세우다

위의 표에서 일본어의 경우 <조사 1>인「が」와 접속하면 뒤에 동사는 자동사가 접속되고 형용사는 원형의 형태를 하면서 본래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조사 2>의「を」와 접속되면 동사는 타동사가 되고 형용사는「する변화형」으로 바뀌었다. 한국어의 경우도 <조사 1>인「이」와 접속하면 자동사이고 <조사 2>「을」과 접속하면 타동사와 접속되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일 양국어의 구조에서 큰 차이가 없고 의미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6> 가슴(胸)의 관용표현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비교

대상	조사	용언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胸	が	熱くなる	가슴이 뜨거워 지다	感動をする
		痛む	가슴이 아프다	心配になったりする
		一杯になる	가슴 가득 차다	喜びや悲しみがを感じる
		躍る	가슴이 뛰다	期待などで興奮する
		空く	가슴이 텅 비다	気分がすっとする
		潰れる	가슴 속이 엉망이다	胸が潰れる思い
		張り裂ける	가슴이 찢어지다	苦しい思いをする
		塞がる	가슴이 답답하다	悲しみにいっぱいする
		焼ける	가슴이 쓰리다	胃が不快感がある
	に	余る	가슴에 남다	心配で堪えられない
		一物	가슴에 뭔가 있다	心の中に何かある
		浮かぶ	가슴에 떠오르다	心に思いえがく
		釘打つ	가슴에 못을 박다	弱点で心が痛む
		刻む	가슴에 새기다	記憶にとどめる

		迫る	가슴에 밀려들다	強い感動を受ける
		畳む	가슴에 쌓다	人に語らない
	の	支えが下りる	가슴이 시원하다	よい気分になる
		内を明かす	가슴속을 밝히다	ほんとうの気持
	を	痛める	가슴을 아파하다	一人で思い悩む
		打つ	가슴을 치다	強く心を動かす
		躍らせる	가슴을 뛰게하다	心をわくわくする
		焦がす	가슴을 태우다	何かに思い焦がれる
		突く	가슴을 찌르다	悲しみで一杯になる
		撫で下ろす	가슴을 쓸어내리다	安心する
		張る	가슴을 펴다	むねをそらす
		膨らませる	가슴을 부풀게하다	喜びや希望で 一杯になる
		割る	가슴을 털어놓다	心を打ち明ける

<표 57> 배(腹)의 관용표현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비교

대상	조사	용언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腹	が	大きい	뱃보가 크다	度量が広い
		黒い	속이 검다	悪い考えを持っている
		据わる	각오가 되어있다	覚悟ができている
		立つ	화가 나다	しゃくにさめる
		出来る	결심이 서다	覚悟を決める
		太い	배짱이 두둑하다	気持が大きい
		悪い	뱃속이 안 좋다	腹の具合いが悪い
	に	一物	마음 속 음모	たくらみを抱いている
		納める	배에 받아들이다	自分だけが心得ておく
		持つ	아이를 갖다	心におく
	の	皮が捩れる	배꼽잡고 웃다	大笑いする
		虫が治まらない	분노를 삭이지 못하다	ひどく腹が立つ
	を	痛める	아이를 낳다	出産の苦しみ

		決める	결심을 하다	堅く決心する
		括る	죽을 각오를 하다	動揺しないよう覚悟
		探る	심중을 찾아보다	相手の意中をうかがう
		据える	굳게 결심하다	覚悟を決める
		立てる	화를 내다	怒る
		見抜く	뱃속을 들여다 보다	本心を探る
		読む	상대의 마음을 읽다	相手の心中をはかる
		割る	속셈을 들어내다	本心を打ち明ける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보면 유사한 표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의미	관용구 표현	공통점	차이점
결심・각오	腹が据わる。腹が出来る。腹を決める。 腹を括る。腹を据える。	○	
분노(화)	腹が立つ。腹の虫が治まらない。 腹を立てる。	○	
배짱	腹が大きい。腹が太い。	○	
임신・출산	腹に持つ。腹を痛める。		○
의중 파악	腹が黒い。腹に一物。腹を探る。 腹を見抜く。腹を読む。腹を割る	○	
상태・웃음	腹が悪い。腹の皮が捩れる	○	○

<표 58> 발(足・脚)의 관용표현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비교

대상	조사	용언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足 (脚)	が	重い	발길이 무겁다	気が進まず様子
		地に付かない	안절 부절하다	喜びでそわそわする
		付く	행적을 알다	人の行く先が知れる
		出る	지출하다	損をする
		遠退く	발길이 멀어져 가다	訪問がすくなくなる
		棒になる	다리가 뻣뻣하다	足が疲れる
		向く	발이 저절로 향하다	自然に行く
	に	任せる	발길 닿는 대로 가다	足の向いた方へ歩く

		下にも 及ばない	발아래에도 못 따라 가다	自分と比べものに ならない
		下に火が付く	발등에 불 떨어지다	重大な事態がさしせまっくる
	の	下の明るい内	사실이 밝혀지기 전	自分の立場が悪くなる前
		踏み場もない	발 디딜 틈도 없다	ひどく散らかっている
	を	洗う	일을 청산하다	仕事などから離れる
		入れる	발을 들여 넣다	ある所に出入りする
		奪われる	발이 묶였다	通勤の交通機関が止る
		掬う	상대에 발을 걸다	悪い立場み追い込む
		取られる	다리를 휘청거리다	歩きながら足を取られる
		伸ばす	다리를 쭉 뻗다	さらに遠くまで行く
		運ぶ	찾아가 보다	進んで行く
		引っ張る	발을 끌어당기다	他人を足を引っ張る
		踏み入れる	발을 집어넣다	入り込む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체 관용구문을 활용한 관용적인 표현이 대화나 문학 작품 등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수집해서 의미의 내용 분석이나 분류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도 신체 관용표현에서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자가 관용표현을 사용할 때 주어와 술어를 이어주는 조사의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그 조사가 사용되었을 때 갖는 고유한 의미와 미묘한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 신체 관용구 형태를 머리 부분과 상체 부분·하체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다시 머리 부분에서 여섯 개의 신체 명칭으로 분류하였고 상체 부분에서는 네 개의 신체 명칭으로 분류하였으며 하체 부분에서는 두 개의 신체 명칭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비교 연구를 위해 조사의 의미와 종류도 분석하였고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관용구 표현의 조사가 대부분 격조사이기 때문에 격조사에 관한 의미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신체 관용구의 조사 분석을 위해 격조사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が・に・の・を」를 중심으로 표집 분류하였다.

신체 관용구의 형태론적 의미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정형적 구조. 비정형적 구조, 무정형적 구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정형적 구조(formal structure) 는 형식을 갖춘 정상적인 문장 구조로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N)에 조사(P)가 접속하여 용언(V.A)이 붙는 구조를 갖는 기본 표현이어서 쉽게 표현하는 구조 방식이다. 「頭が上がらない」의 관용구문에서「N+P+V」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정형적 구조라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비정형적 구조(informal structure)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닌 구조로서 조사가 생략되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표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표현이 되겠지만 비정상적인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顔出して行く」에서 「N+V」구조로 조사가 생략되는 비정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정형적 구조라고 분류한 것이다.

세 번째는 무형식적 구조(unformal structure)로 그야말로 아무런 형식에 구애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즉흥적인 관용표현이라고 본다.

이것은 문장 형태가 되지 않는 구조의 표현 방식이어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체 명칭을 활용한 표현이어서 무형식적 구조라고 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인 신체 관용구의 활용과 조사의 비교 분석에서는 관용표현에 접속된 조사에 따라 유형은 A형부터 D형까지 분류하였고 유형별로 양국의 예문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그 예문에서 의미와 용법도 파악하면서 조사의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어 어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目が無い」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눈보다는 사물이나 내용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눈 즉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눈인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본다. 눈이 곧「분별」이나「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조사「が」는 이러한 통찰력이 없다는 주체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그러나「目は無い」또는「目も無い」라고 한다면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본다.「目は無い」에서「は」는 다른 것은 좋은데 구별하는 눈은 없다는 것으로 눈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も」는 의미상으로 다른 것도 부족하지만, 판단하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서 본래 의미인 판단력이 없다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적절

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조사「が」의 역할이 주격조사로서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국의 표현에서도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 본다.

「머리」의 관용구 중에서도 「頭+が＋上がる」의 형태의 경우 한국어로는 「머리를 들다. 올리다」라는 표현인데 일본어에서는 반드시 조사 「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가 주체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법의 차이는 어떤 행동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어법에 맞는 조사가 필요하므로 다른 조사로 대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얼굴 관용표현에서도 「顔が好い」의 경우「수국이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었다. 마음도 얼굴만큼 고왔다」라는 칭찬의 긍정적인 면과 「그 혈색 좋은 허연 얼굴에는 교활함과 간사함이 언제나 감돌고 있었다.」 와 같은 비난이나 비웃는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가슴(胸)의 관용구에서는 가슴이라는 어휘에 내포되어있는 의미는 곧「마음·정신·감정의 기반」이라는 내재적 의미를 갖는 것이 많이 있는 표현이다.

「胸＋が＋用言」의 형태 중에서「痛む·潰れる·張り裂ける·塞がる」는「고통·걱정·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가슴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내재적인 의미로 양국의 표현에서도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배(腹)에 관한 관용구의 의미는「결심·각오·다짐」등의 표현이 대부분이고 어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어 표현과 일본어 표현에서 동의구가 많고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의미는 공통적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발(足)에 대한 관용구에서 표현된 대표적인 의미로는「행적·관여·관계」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공통적인 것으로「足が重い」의 의미에서 한국어에서도 「발길이 무겁다」는 표현이 있어서 감각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이고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이 양국의 감정에 공감이 된다고 본다.

일본어에서는「足を洗う」에서「足」가「어둠의 세계·잘못된 관계」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해야 할 경우에는「손을 씻는다.」는 표현으로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신체 관용구의 형태에 따라 조사의 의미와 역할을

양국의 관용표현에서 고찰해 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조사에 따라 관용적인 표현의 어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신체 관용구의 관용표현에서는 양국의 공통점도 많았다는 것을 분석해서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신체에 관련된 관용표현을 더 많은 조사에 따라 관용구의 의미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하면 양국의 관련된 학문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참고문헌

강현화(2016)『한국어교육 문법』 한글파크 p.97

권익호(1997)「目に関する身体語彙の慣用句」 『일본연구 12집』 중앙대학교

권익호,이선화(2019)「신문에 나타난 일본어 표현에 관한 고찰」『語文論集第80輯』 중앙어문학회 pp.7～35

_____(1997)「目」に関する身体語彙の慣用句 『일본연구12집』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p.164

_____(2000)「身体語彙「頭·首」に関する韓日表現」『외국학연구』중앙대학교 외국어문학연구소 p.123

권익호·홍민희(2019)『신체어휘의 관용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일본연구51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22

길미란(2013)『한국어 단어의 의미구조와 의미관계 연구』한국문화사 p.458

김도연(2015)『마지막 정육점』문학동네 p.87

김숙정(2017) 「명사구성 합성어의 조어적 의미 연구」고려대학교 p.96

김승곤(2018)『국어 조사 연구』글로벌콘텐츠 p.17 p.53 p.116 p.179

김옥분(2000)「身體 言語 慣用句의 認知的 理解」 『韓國學研究』 第11輯1號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p.36

김은숙(2021)『미스터 션사인2』(주)알에이치코리아 p.205

김정현(1996)『아버지』문이당 p.145

김직수(2005)「韓日身体語彙慣用句の比較研究」『日語教育第33輯』한국일본어교육학회 p.118

김태훈(2022) 〔만물상〕「첫 문장」 조선일보 7.15. 34면

김현수(2012) 日本語の「目」と韓国語の「눈」の意味拡張の様相 『日語日文學56輯』 大韓日語日文學會 p.24

김희성(2015)「현대일본어의 원망문에 있어서의「が」「を」격교체 현상」『일본어학연구 제48집』 p.5

나스케 소세키(윤상인 역)(2017) 민음사 p.7
도스토예프스키(김재경 역)(1996) 『죄와 벌(상)』혜원출판사 p.9
도원영·박주원(20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p.60
박경리(2010)『토지』1권 아름출판사 p.47
_____(1994)『김약국의 딸들』나남 p.46
박복덕(1986)「日本語の『に』と韓國語の『에』との對照」『日語日文學硏究 제9집』韓國日語日文學會 p.50
박주원(20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p.144
박해환(2017)「形容詞述語文における助詞「を」の文型と用法」『외국학 연구 제42집』중앙대학교외국학연구소 p.249
배도용(2002)「多義語 '눈'의 意味 擴張 硏究」『談話와 認知 第9卷1號』談話・認知言語學會 pp.51-76
설근수(2017)『日本語の文法論硏究』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p.99
성석재(2004)『재미나는 인생』도서출판 강 p.19
신기철・신용철(1987) 『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신은경(최호철 편)(2013) 『한국어 단어의 의미구조와 의미관계 연구』한국문화사 p.106
이지은(2021)『한일 관용구 표현의 어법 대조 연구』 한국일본어 교육학회 98집
_____(2022)『한일 관용구의 조사 역할과 기능 비교 연구』 한국일본어 교육학회 100집
_____(2022)『한일 관용표현에서 조사의 역할 비교 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제 제121집
아게하(2015)『스팅』우신출판문화 p.214
양기(2019)「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유형론적 대조 연구」『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전남대학교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p.60
연진숙(2009)「韓国語身体語彙慣用句の研究(2)」『信州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巻3』信州大学 p.160
오토다케 히로타다(1999)『오체불만족』창해 p.86
우경숙(1985)慣用語句としての「耳・目」と「귀・눈』の意味考察と教授法につい

て『國際大學 論文集 第13輯』 pp.92-113
유춘희 성은경 김현철(2000) 「韓・日 兩言語에 대한 慣用句의 特徵 比較」『日本學報 第44輯 1號』 韓國日本學會 pp.85-96
윤흘길(2012)『장마』민음사 p.155
이명옥(2007) 『日本語と韓國語の慣用表現の差異』笠間書院 p.64 p.74
이민진(2022)『빠친코』인플루엔셜 p.50
이영희(1982)「國語의 慣用的 表現에 의한 意味의 多義化 硏究」『語文論集第16輯』 중앙대학교 p.65
이익섭(2015) 한국의 탐구 33 『한국어 문법』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151
이채형(2011)『사과나무 향기』문학나무 p.226
이효석(2010)『메밀꽃 필 무렵』문학과 지성사 p.224
임지룡 외(2005)『학교문법과 학교교육』박이정 p.4-5
임팔용(1998)「日・韓 身體語彙 慣用句의 對照 考察1」 『日本文化硏究 第13輯』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센타 日本硏究所 p.275
_____(2004)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연구」제이엔씨 p.29
_____(2006)「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 연구」 제이엔씨 p.15
전성용(2015)「～が好きだ」와「～を好きだ」에 대하여 『일본연구』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103
정수현(2007)「身体語彙에 관한 日本語慣用表現」대학서림 p.137
정원희(2010)「통어론적 의미에서 본 일본어의 격조사」『日本文化硏究 제35집』p.434 p.444
조정래(1994)『아리랑』3권 해냄 p.262
존그리샴(2011)『고백』(신윤경 옮김) 문학수첩 p.273
최명희(2004)『혼불』4권 한길사 p.15
최택호(2004)「韓・日 兩言語의 身體語彙를 使用한 慣用表現硏究」 어문학사 pp.96-97
_____(2012)「한일 양언어의 신체 어휘를 사용한 관용표현에 관한 소고」『東洋文化硏究 第10輯』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p.234
_____(2003)「韓日両国語의 身体部位 '발·다리'와 「足 ·脚」에 관한 慣用的 表

現의 研究」『日語教育 第25輯』한국일본어 교육학회 p.160
_____(2002)「韓日両国語의 身体語彙「배」와「腹」에 의한 慣用的 表現에 관한 考察『日語教育 21輯』한국일본어교육학회 p.117
하채령(2017)「분노(怒)표현의 단계와 정도성에 관한 고찰」『日本語教育研究 제38집』韓国日語教育学会 p.206
韓国文化 상징사전(1992) 동아출판사 p.175
현진건(2009)『빈처』문학과 지성사 p.45
홍사만(1994)「身體 語彙의 多義 構造 分析(Ⅵ) 『語文論叢 第29號』
_____(1993)「신체어의 다의 구조 분석(Ⅳ)」『어문논총 제27호』경북어문학회 p.318
홍윤정(2004)『비타민』영언문화사 p.103
황석영(2004)「장길산」창비 p.286 p.347
_____(2004)『객지』창비 p.61
_____(2012)『손님』(주)창비 p.165
_____(1980)『어둠의 자식들』현암사 p.167
황진순(2011)『반지』디앤씨미디어 p.32 p.257
황화상(2012)『국어 조사의 문법』지식과 교양 p.28 p.229

森田良行(1966)「慣用的な言い方」『講座日本語教育 第4巻』 早稲田大學語學研究所 p.72
星野命(1976)「身体語彙による表現」 『日本語講座第4巻』 大修館書店 pp.155-176
大月実(1987)「慣用句にあらわれる身体」 『言語生活』 1号 大修館書店 p.40-42
森田良行(1966)「慣用的な言い方」 『講座 日本語教育 第26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p.6
田中康仁·吉田将(1987)「慣用表現について」『情報処理学会研究報告情報学基礎(FI) 』 姫路短期大学 p.6
長谷川潔(1975)「日英慣用句の考察」 國際交流基金 p.51
森田良行(1988)『日本人の発想、日本語の表現-「私」の立場がことばを決める-』

中公新書 p.57
白石大二編（1983）『国語慣用句辞典』 東京堂出版
梅棹忠夫.金田一春彦.阪倉篤義.日野原重明(2000)『日本語 大辞典』 第2版
講談社.
旺文社(2020) 『標準ことわざ慣用句辞典』 旺文社
三省堂(2022) 『故事ことわざ·慣用句辞典』三省堂
三浦つとむ(2000)『日本語の文法』勁草書房 p.197 p.232 p.277
新村 出(2018)『広辞苑七版付禄』岩波書店 p.211
西田直敏(1977)『岩波講座 日本語7 文法Ⅱ』岩波書店 p.192
白石大二編(1983) 『国語慣用句辞典』 東京堂出版 p.1
宮地裕(1982) 「慣用句の意味と用法」明治書院 p.242
土屋智行(2011)「言語の創造性の基盤としての定型表現『認知科学 18巻2号』p.370
三島由紀夫(2002) 日韓對譯문고 『熱帶樹』다락원 p.100
Wray, A. (2002)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Cambridge Univ Pr.
재인용
阿刀田高(1995) 日韓對譯문고 『待っている男』다락원 p.8
北川千里. 鎌田修. 井口厚夫(1987)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7
『助詞』荒竹出版 p.123
川端康成(1989) 日韓對譯문고 『伊豆の踊子』 다락원 p.54
壺井栄(2003) 日韓對譯문고 『港の少女』다락원 p.154
北村たたし(2005)「신체관련 관용구에 보는 한국문화」『한국언어문화학 2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12
石田プリシラ(1998)「慣用句の変異形について」」쓰쿠바 응용 언어학 저널
『筑波応用言語学研究 5号』 p.48
川端康成(2002)日韓대역문고 『雪國』(下) 다락원 p.84
大岡昇平(1993) 日韓대역문고 『動物』다락원 p.126
脇川友恵(2013)「韓国人学習子の日本語身体部位慣用句の意味推測」『日本語教育
第66輯』한국일본어교육학회 p.28
金田一京助(2000)『新明解国語辞典』三省堂 p.203

大野 晋(1977) 岩波講座『日本語7 文法Ⅱ』岩波書店 p.201
鈴木 忍(1980)『文法Ⅰ』 国際交流基金 凡人社 p.5
庵 功雄 他3人(2002)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제이엔씨 p.322
紫田武(1985) 『ことばの意味』平凡社 p.20
高橋太郎(2016) 『日本語の文法』ひつじ書房 p.46
小池清治(20030「慣用句の分類とその応用」『宇都宮大学国際学部研究論集 第16号』宇都宮大学国際学部 p.91
馬場康維(2013)「状態空間表現を用いた文章の特徴付け」『国立国語研究所 共同研究報告 12-06』国立国語研究所 p.89
北川千里(1988)『外国人のための例文 ・ 助詞』 荒竹出版 p.123
野田尚史(1986)『日本語文法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１は と が』 くろしお出版 p.23
東野圭吾(2016)『ナミヤ雑貨店の奇跡』角川文庫 p.372
高橋太郎(2016)『日本語の文法』ひつじ書房 p.19
森本勝彦(2022)「喜びに関する慣用句の韓·日対照分析」『日本文化研究 제8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4
中村 明(1985)『感情表現辞典』六興出版 p.76
Hermann Ebbinghaus(1850-1909) 독일의 심리학자. 기억의 실험연구를 개척하여 망각곡선과 간격효과를 발견했다. (위키백과)
脇川友惠(2014)「身體部位慣用句の意味推測における第二言語習熟度の影響」『日語日文學 第61輯』대한일어일문학회 p.254
湊かなえ(2011)『告白』双葉文庫 p.22
佐竹隆三(1984) 『腹と胸 -「身体語彙」ものしり辞典」- 大正大学出版部 p.22
藤巻 一真(2006)「慣用句と右方転移」『Scientific approaches to language巻 5』神田外語大学言語科学研究センター p.234
呉 琳(2017)『コーパスに基つく日本語慣用句の研究』北海道大学 博士学位論文 p.91